



2026. 8

국회에산정책처 | 산업동향 & 이슈 | 제83호

NABO 산업동향 & 이슈

NABO Industry Trends & Issues

CONTENTS

산업 동향

산업 이슈 |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전력 인프라 대응과제

naboo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산업동향 & 이슈

총괄	정지은	경제분석국장
기획	박미정	경제분석총괄과장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조정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조은영	경제분석관
작성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김윤희	경제분석관
	조은영	경제분석관
	김용균	경제분석관
	유기환	경제분석관
	이진희	경제분석관
지원	양희열	행정실무관
	이아라	자료분석연구원

- 「NABO 산업동향 & 이슈」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자원분석과 (☎ 02-6788-378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BO 산업동향 & 이슈」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산업동향 & 이슈

C O N T E N T S

I 산업생산

1. 전산업	08
2. 제조업	12
3. 서비스업	25

II 수출

1. 13대 산업 수출	34
2. 10대 주요 지역별 수출	43
3. 가공단계별 수출	44

III 에너지·원자재

1. 에너지	46
2. 전력	48
3. 비철금속	53
4. 곡물	54

IV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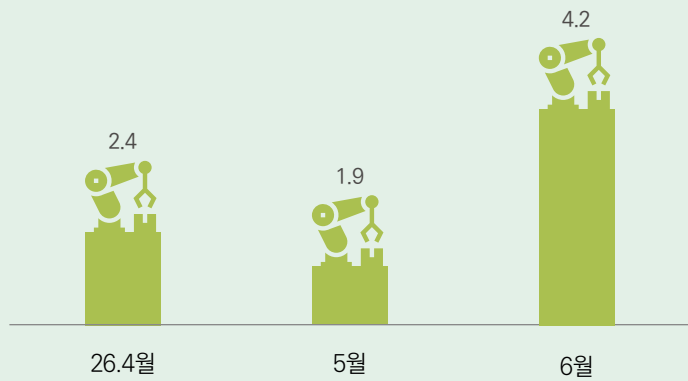
1. 배출권거래	56
2. 재활용가능자원	59

V 산업 이슈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전력 인프라 대응과제	6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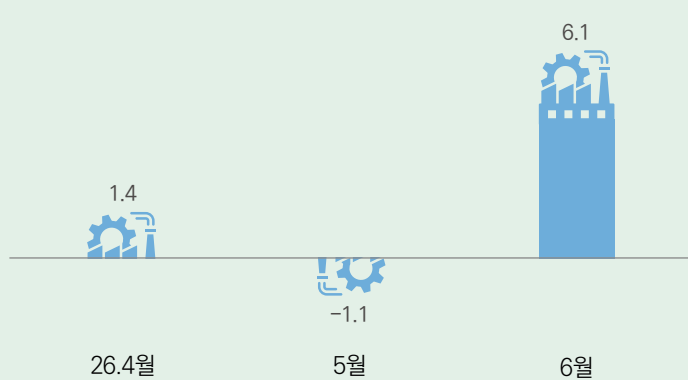
전산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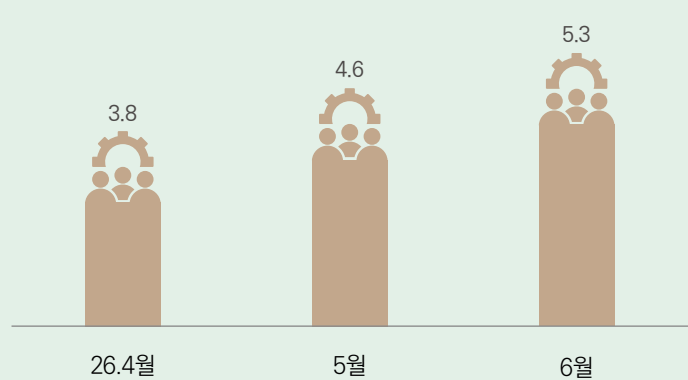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



서비스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



산업동향 & 이슈 종합

-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의 장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요 제조업의 수출 호황과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등 일부 서비스업의 생산 확대로 높은 성장세를 보임

6월과 7월 수출은 반도체, 컴퓨터주변장치, 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중동 전쟁 이후 고유가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석유관련 수출도 증가

- (전산업 생산) 6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2%, 전월대비 2.3% 증가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6.4월) 2.4 → (5월) 1.9 → (6월) 4.2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6.4월) -0.5 → (5월) -0.4 → (6월) 2.3
- (제조업 생산) 6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1%, 전월대비 6.8% 증가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6.4월) 1.4 → (5월) -1.1 → (6월) 6.1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6.4월) -0.9 → (5월) -3.2 → (6월) 6.8
- (서비스업 생산) 6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3%, 전월대비 0.7%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6.4월) 3.8 → (5월) 4.6 → (6월) 5.3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6.4월) -0.8 → (5월) 1.0 → (6월) 0.7
- (건설업 생산) 6월 「건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0% 감소, 전월대비 4.1% 증가
 - 건설업(전년동월대비, %): ('26.4월) -6.6 → (5월) -3.2 → (6월) -4.0
 - 건설업(전월대비, %): ('26.4월) -2.8 → (5월) 3.7 → (6월) 4.1
- (수출) 7월 「주요 13대 산업의 수출」은 812.5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5.5% 증가
 - 수출액(억달러): ('26.5월) 724.6 → (6월) 845.5 → (7월) 812.5
 - 수출액(전년동월대비, %): ('26.5월) 64.4 → (6월) 85.1 → (7월) 75.5
- (에너지 및 원자재) 7월 「에너지, 비철금속, 곡물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에너지 가격(전년동월대비, %): ('26.5월) 59.2 → (6월) 19.2 → (7월) 18.5
 - 비철금속 가격(전년동월대비, %): ('26.5월) 39.3 → (6월) 33.1 → (7월) 27.4
 - 곡물 가격(전년동월대비, %): ('26.5월) 11.4 → (6월) 9.8 → (7월) 8.3
- (환경) 6월 「배출권(KAU25) 증가」는 전월대비 하락, 「장내거래량」은 증가
 - KAU 증가(원/톤): ('26.4월) 17,050 → (5월) 24,550 → (6월) 22,800
 - KAU25 장내거래량(천톤): ('26.4월) 6,611 → (5월) 4,345 → (6월) 11,358

주요 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원/달러,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2Q	5월	6월	7월
전산업생산	1.6	1.1	0.3	1.0	3.6	-0.2	2.9	2.9	1.9	4.2	-
제조업생산	4.3	3.0	2.8	3.5	8.1	-1.9	3.0	2.1	-1.1	6.1	-
서비스업생산	1.3	2.0	0.9	1.6	3.2	2.3	4.2	4.5	4.6	5.3	-
소매판매액	-1.9	0.3	-0.8 (0.6)	-0.1 (-0.6)	1.6 (1.2)	0.9 (0.6)	3.2 (2.4)	2.4 (-1.7)	1.5 (0.1)	4.2 (2.7)	-
설비투자지수	3.0	1.2	5.4 (-2.2)	5.5 (0.3)	1.2 (0.6)	-6.2 (-3.8)	9.8 (13.0)	13.0 (3.6)	9.7 (0.3)	21.7 (5.8)	-
건설기성액	-4.6	-16.5	-21.1 (-7.2)	-17.3 (-2.6)	-11.9 (-0.8)	-15.1 (-4.1)	-6.1 (0.5)	-4.6 (0.4)	-3.2 (3.7)	-4.0 (4.1)	-
수출(통관)	8.1	3.8	-2.3	2.1	6.5	8.4	38.4	57.3	53.0	70.7	62.8
13대 산업	10.7	3.7	-3.1	1.4	6.6	9.5	45.3	69.7	64.4	85.1	75.5
수입(통관)	-1.7	0.0	-1.3	-1.7	1.6	1.4	11.0	22.4	20.7	30.0	26.5
경상수지(억달러)	999.7	1230.5	194.9	283.9	360.1	391.7	743.8	1166.3	386.1	497.3	-
소비자물가	2.3	2.1	2.1	2.1	2.0	2.4	2.1	3.0	3.1	3.2	2.8
취업자수 증감(천명)	160	193	155	207	217	195	183	32	-40	63	108
실업률	2.8	2.8	3.4	2.8	2.2	2.9	3.5	2.9	2.9	2.8	2.6
원/달러환율	1,364	1,422	1,473	1,350	1,403	1,439	1,530	1,549	1,508	1,549	1,424
국고채금리(3년)	3.11	2.57	2.59	2.39	2.45	2.84	3.20	3.62	3.68	3.79	3.83

주: 1.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금리는 기간 평균
 3. 원/달러 환율의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월)말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I

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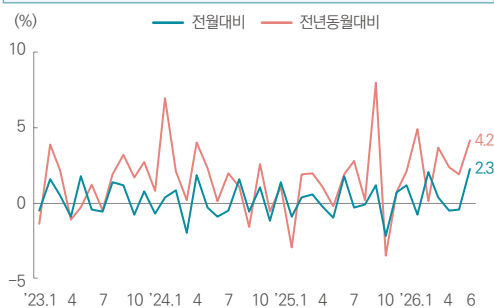
1

전산업

■ 2026년 6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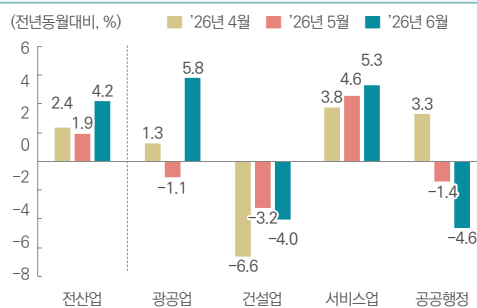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2%, 전월대비 2.3% 증가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6.4월) 2.4 → (5월) 1.9 → (6월) 4.2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6.4월) -0.5 → (5월) -0.4 → (6월) 2.3
- 산업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광공업(5.8%), 서비스업(5.3%)의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공공행정(-4.6%), 건설업(-4.0%)은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광공업(6.4%), 건설업(4.1%), 서비스업(0.7%)의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공공행정(-4.0%)은 감소

| 그림 1 | 전산업생산 월별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 그림 2 | 부문별 생산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 2026년 6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 전년동월대비: 컴퓨터·주변장치(-22.2%), 석유(-10.4%), 섬유(-2.2%) 등의 생산은 줄었으나, 무선통신기기(27.6%), 일반기계(14.4%), 자동차(12.6%), 조선(10.9%), 가전(4.4%), 화학(2.8%), 반도체(2.2%), 철강(1.0%)이 늘면서 6.1% 증가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6.4월) 1.4 → (5월) -1.1 → (6월) 6.1

- 전월대비: 컴퓨터·주변장치(-4.9%), 무선통신기기(-1.5%) 등의 생산은 줄었으나, 가전(25.8%), 자동차(15.4%), 조선(14.0%), 일반기계(8.6%), 석유(6.8%), 섬유(6.6%), 화학(5.8%), 반도체(4.5%), 철강(2.0%)이 늘며 6.8% 증가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6.4월) -0.9 → (5월) -3.2 → (6월) 6.8

| 표 1 | 제조업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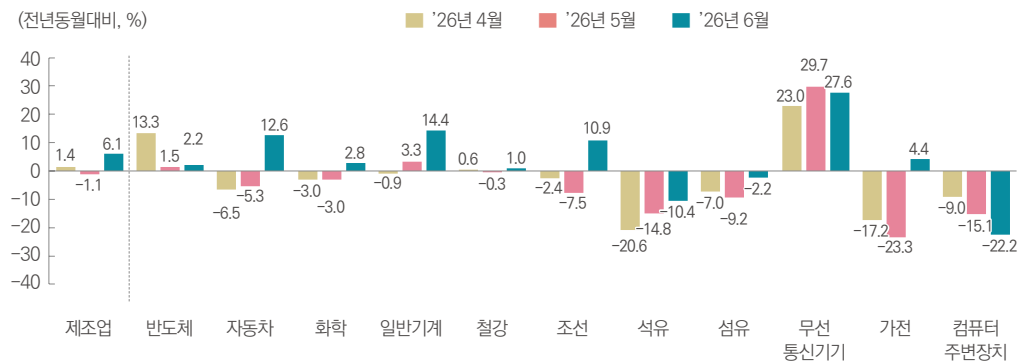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5			2026			전월대비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제조업(원지수)	117.5	114.8	117.7	119.1	113.5	124.9	6.8
제조업	5.5	1.0	4.3	1.4	-1.1	6.1	
반도체	17.7	16.3	15.6	13.3	1.5	2.2	4.5
자동차	1.2	-2.1	2.5	-6.5	-5.3	12.6	15.4
화학	0.5	-3.7	-1.6	-3.0	-3.0	2.8	5.8
일반기계	4.3	-0.1	0.4	-0.9	3.3	14.4	8.6
철강	-2.0	1.9	1.1	0.6	-0.3	1.0	2.0
조선	40.6	30.2	29.8	-2.4	-7.5	10.9	14.0
석유	-2.3	-2.7	2.6	-20.6	-14.8	-10.4	6.8
섬유	-0.8	-4.9	-2.6	-7.0	-9.2	-2.2	6.6
무선 통신기기	4.7	7.3	17.0	23.0	29.7	27.6	-1.5
가전	-10.7	-25.1	-22.6	-17.2	-23.3	4.4	25.8
컴퓨터 주변장치	1.4	11.7	15.8	-9.0	-15.1	-22.2	-4.9

주: *표는 잠정치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그림 3 | 제조업 생산 동향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2026년 6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 전년동월대비: 금융보험업(9.2%), 운수창고업(4.7%),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6%), 도소매업(4.1%),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3.7%), 부동산업(2.6%), 숙박·음식점업(1.0%), 정보통신업(1.0%) 등이 늘며 5.3%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6.4월) 3.8 → (5월) 4.6 → (6월) 5.3
- 전월대비: 정보통신업(-3.0%), 숙박·음식점업(-2.3%) 등은 줄었으나, 도소매업(0.0%)은 정체되었고, 금융·보험업(2.8%), 운수창고업(2.0%), 부동산업(0.9%),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0.3%),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0.3%) 등이 늘며 0.7%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6.4월) -0.8 → (5월) 1.0 → (6월) 0.7

| 표 2 | 서비스업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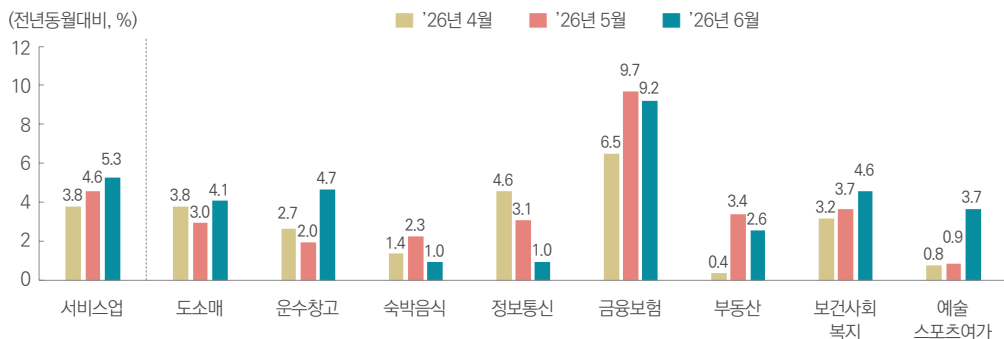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5			2026			전월대비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서비스업(원지수)	118.4	118.6	121.7	122.9	124.1	128.1	0.7
서비스업	1.4	1.2	2.3	3.8	4.6	5.3	
도매 및 소매업	2.2	-0.9	2.4	3.8	3.0	4.1	0.0
운수 및 창고업	5.9	4.1	3.8	2.7	2.0	4.7	2.0
숙박 및 음식점업	-2.2	-1.0	-2.5	1.4	2.3	1.0	-2.3
정보통신업	4.8	1.2	1.2	4.6	3.1	1.0	-3.0
금융 및 보험업	0.8	3.3	6.1	6.5	9.7	9.2	2.8
부동산업	-1.2	-2.8	-0.5	0.4	3.4	2.6	0.9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3	7.6	5.7	3.2	3.7	4.6	0.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0.9	0.5	-2.4	0.8	0.9	3.7	0.3

주: *표는 잠정치

자료: 국가데이터터,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 | 서비스업 생산 동향



자료: 국가데이터터, 「서비스업동향조사」

■ 2026년 6월 「건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 전년동월대비: 건설업 생산은 -4.0%로, 2024년 5월부터 2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부문별로는 건축(-2.1%)과 토목(-9.0%)이 모두 감소
 - 건설업(전년동월대비, %): ('26.4월) -6.6 → (5월) -3.2 → (6월) -4.0
 - 건축(전년동월대비, %): ('26.4월) -6.3 → (5월) -0.7 → (6월) -2.1
 - 토목(전년동월대비, %): ('26.4월) -7.5 → (5월) -10.5 → (6월) -9.0
- 전월대비: 건설업 생산은 4.1% 증가하였고, 부문별로는 건축(5.9%)이 증가하였으나 토목(-1.3%)은 감소
 - 건설업(전월대비, %): ('26.4월) -2.8 → (5월) 3.7 → (6월) 4.1
 - 건축(전월대비, %): ('26.4월) -1.8 → (5월) 5.0 → (6월) 5.9
 - 토목(전월대비, %): ('26.4월) -5.6 → (5월) 0.2 → (6월) -1.3

| 표 3 | 건설업 생산(불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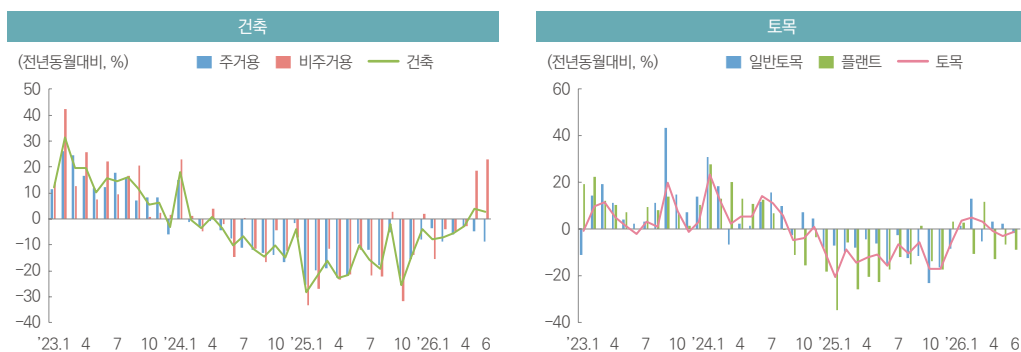
(단위: 조원,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5			2026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전월대비
건설업(생산액)	9.4	9.2	11.0	8.8	8.9	10.6	4.1
건설업	-20.8	-19.3	-12.3	-6.6	-3.2	-4.0	
건축	-23.0	-21.8	-10.5	-6.3	-0.7	-2.1	
토목	-13.5	-11.5	-16.7	-7.5	-10.5	-9.0	

주: *표는 잠정치

자료: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 그림 5 | 공종별 건설업 기성액(경상) 추이



주: 1. 건축은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구성되고, 토목은 일반토목, 플랜트, 전기기계, 조경공사로 구성되나, 전기기계, 조경공사는 토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이를 제외함

2. 세부 공정에 대한 건설기성액은 불변기준으로 공표되지 않으므로 경상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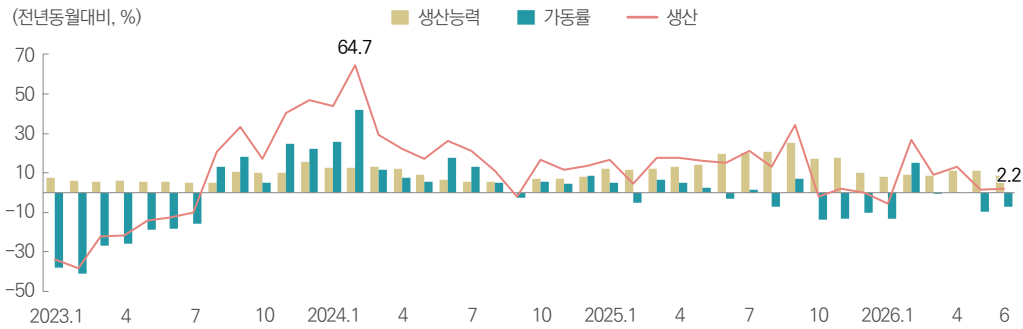
제조업

■ 반도체: 전년동월대비 6월 「생산」 및 「재고」는 모두 증가

• 6월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2%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13.3 → (5월) 1.5 → (6월) 2.2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0.0 → (5월) -9.6 → (6월) -7.0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11.3 → (5월) 11.2 → (6월) 8.7

| 그림 6 | 반도체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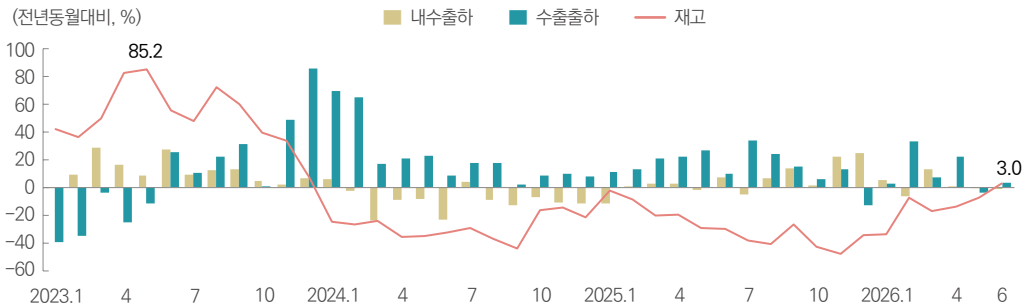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6월 반도체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13.7 → (5월) -7.3 → (6월) 3.0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0.4 → (5월) -0.4 → (6월) -1.1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22.4 → (5월) -3.7 → (6월) 3.4

| 그림 7 | 반도체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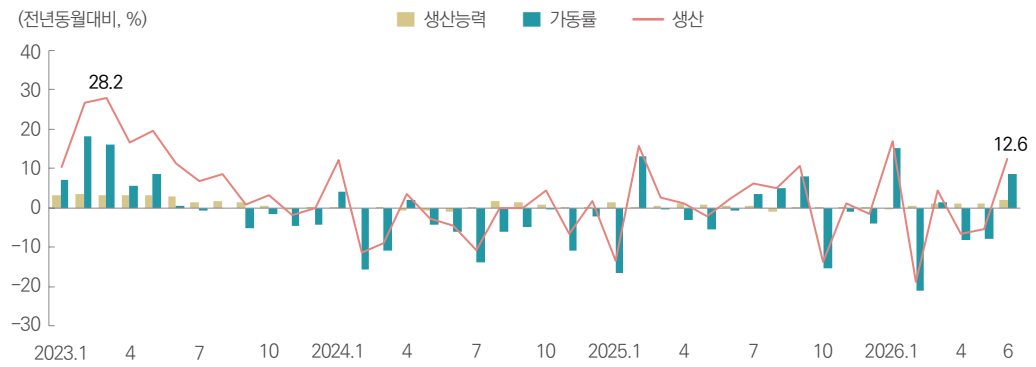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자동차: 전년동월대비 6월 「생산」 및 「재고」는 모두 증가

• 6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6.5 → (5월) -5.3 → (6월) 12.6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7.9 → (5월) -7.6 → (6월) 8.8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1.2 → (5월) 1.3 → (6월) 2.3

| 그림 8 | 자동차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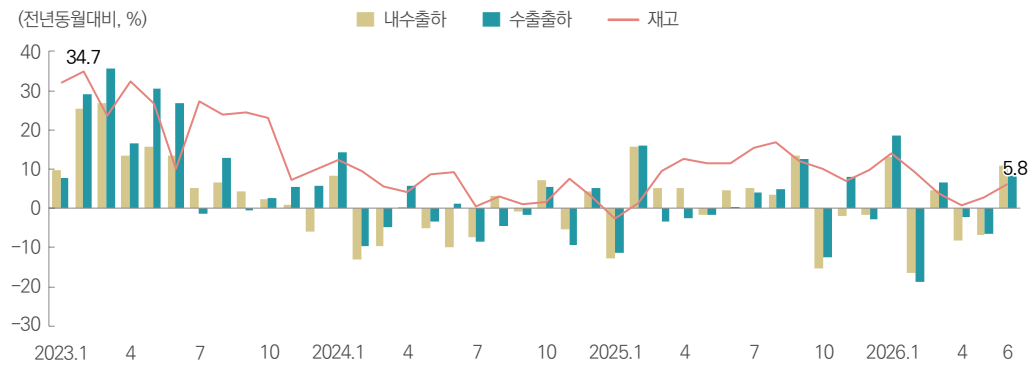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터,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6월 자동차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5.8%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0.4 → (5월) 2.4 → (6월) 5.8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8.3 → (5월) -7.0 → (6월) 10.8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2.4 → (5월) -6.6 → (6월) 8.2

| 그림 9 | 자동차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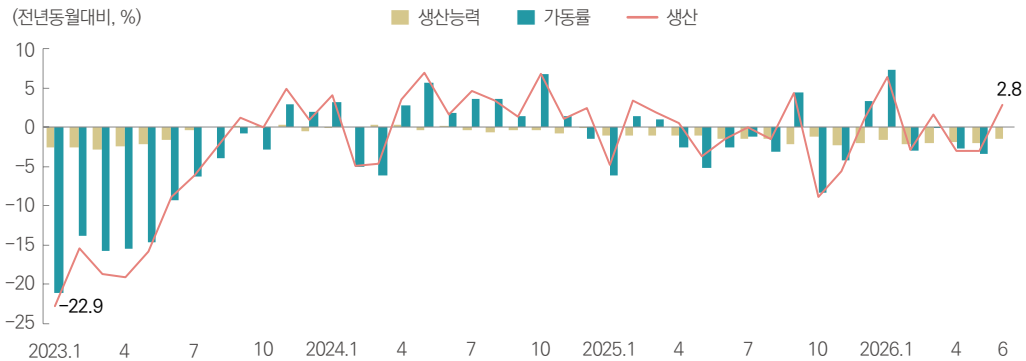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터,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화학: 전년동월대비 6월 「생산」 및 「재고」는 모두 증가

• 6월 화학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8%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3.0 → (5월) -3.0 → (6월) 2.8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2.8 → (5월) -3.5 → (6월) 0.0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2.0 → (5월) -2.1 → (6월) -1.6

| 그림 10 | 화학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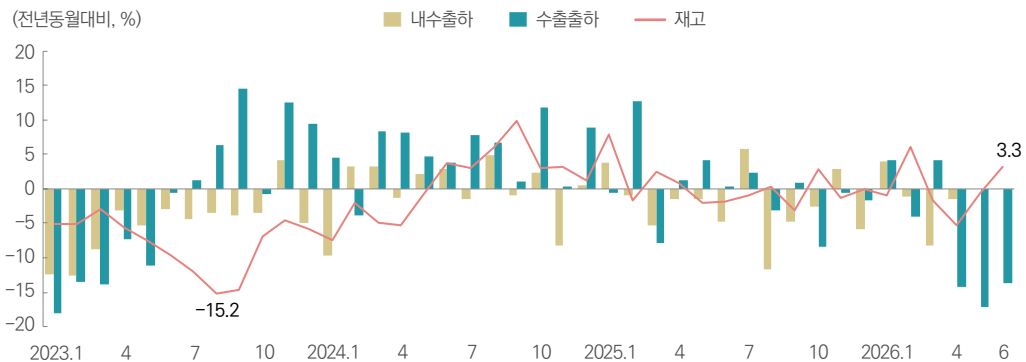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6월 화학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3.3%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5.2 → (5월) -0.4 → (6월) 3.3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1.0 → (5월) -8.0 → (6월) -1.4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14.1 → (5월) -16.9 → (6월) -13.6

| 그림 11 | 화학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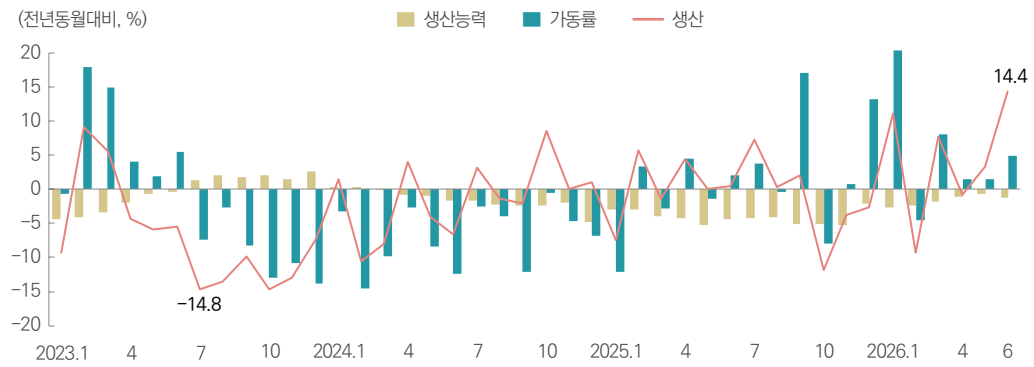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일반기계: 전년동월대비 6월 「생산」 및 「재고」는 모두 증가

- 6월 일반기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4.4%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0.9 → (5월) 3.3 → (6월) 14.4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1.4 → (5월) 1.4 → (6월) 4.8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1.2 → (5월) -0.7 → (6월)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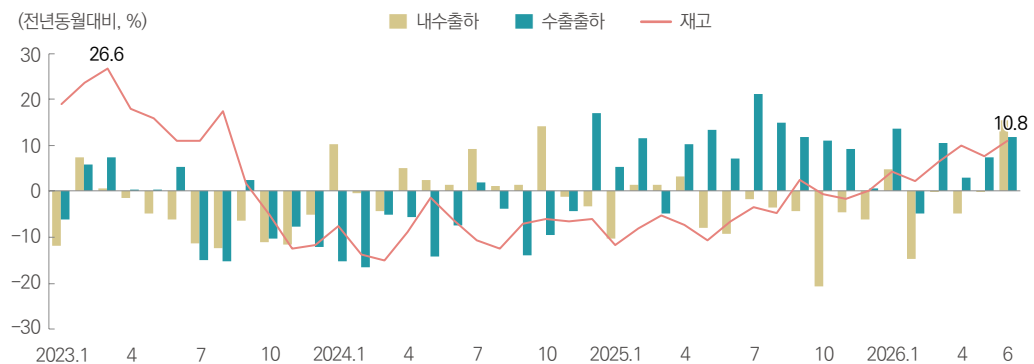
[그림 12] 일반기계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6월 일반기계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10.8%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9.8 → (5월) 7.4 → (6월) 10.8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4.9 → (5월) -0.2 → (6월) 15.2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2.9 → (5월) 7.2 → (6월) 11.7

[그림 13] 일반기계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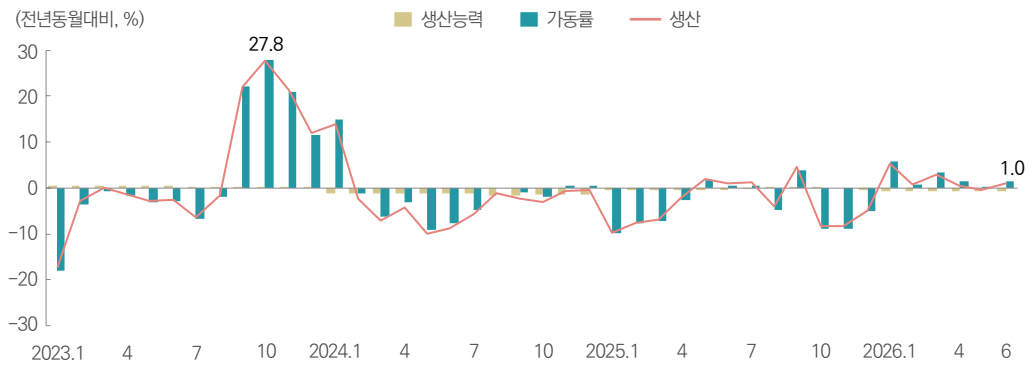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철강: 전년동월대비 6월 「생산」은 증가, 「재고」는 감소

• 6월 철강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0.6 → (5월) -0.3 → (6월) 1.0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1.6 → (5월) 0.4 → (6월) 1.6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0.7 → (5월) -0.7 → (6월) -0.7

| 그림 14 | 철강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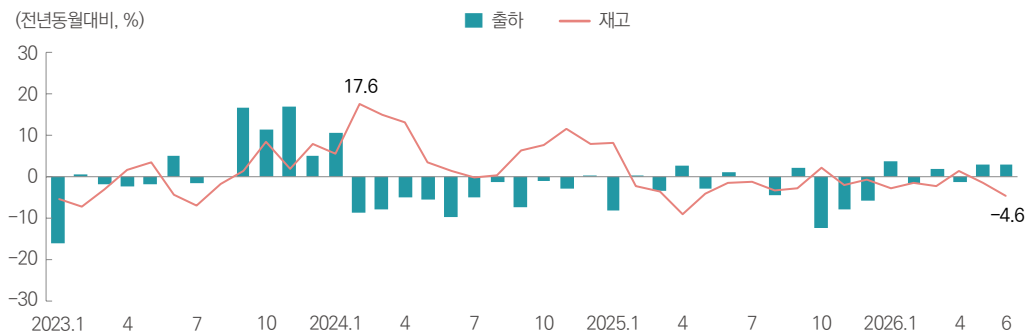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6월 철강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4.6%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1.5 → (5월) -1.4 → (6월) -4.6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1.3 → (5월) 3.0 → (6월) 3.1

| 그림 15 | 철강 산업 재고 및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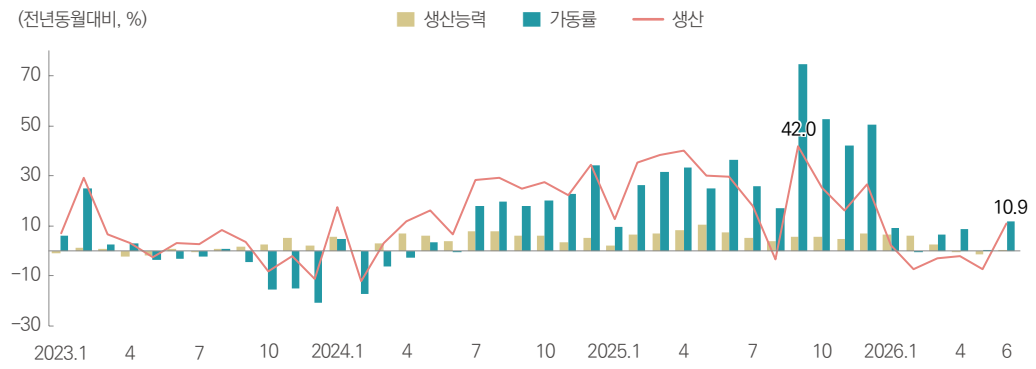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조선: 전년동월대비 6월 「생산」 및 「출하」는 모두 증가

• 6월 조선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9%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2.4 → (5월) -7.5 → (6월) 10.9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8.9 → (5월) 0.6 → (6월) 11.7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0.5 → (5월) -1.4 → (6월) 0.4

| 그림 16 | 조선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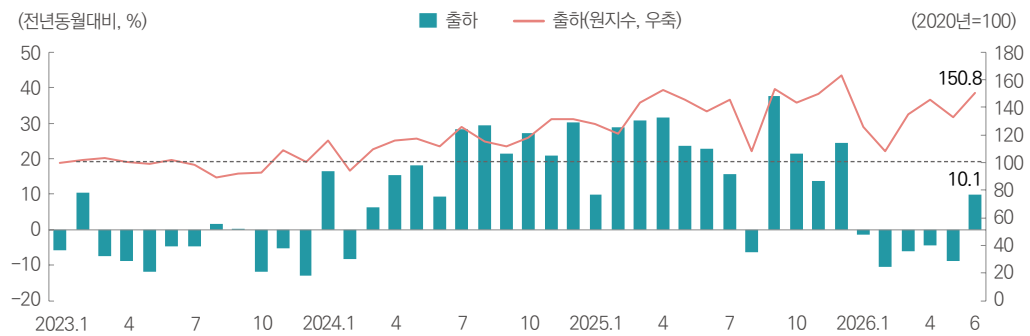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6월 조선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10.1% 증가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4.4 → (5월) -8.7 → (6월) 10.1
- 출하(2020년=100): ('26.4월) 145.9 → (5월) 132.8 → (6월) 150.8

| 그림 17 | 조선 산업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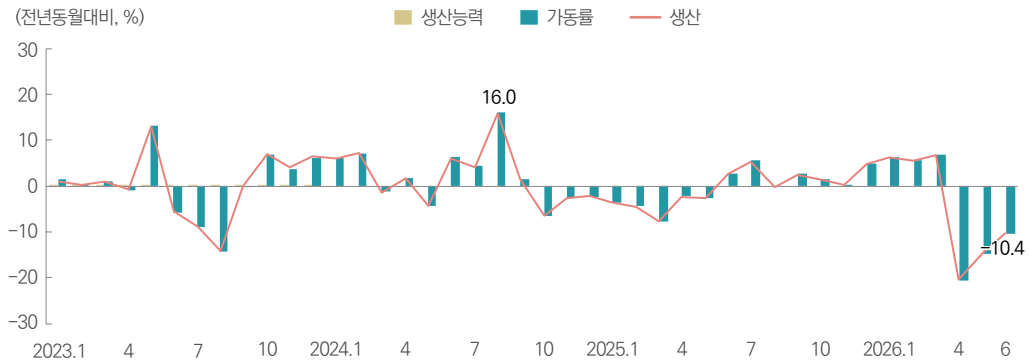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석유: 전년동월대비 6월 「생산」은 감소, 「재고」는 증가

• 6월 석유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4%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20.6 → (5월) -14.8 → (6월) -10.4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20.6 → (5월) -14.8 → (6월) -10.4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0.0 → (5월) 0.0 → (6월) 0.0

| 그림 18 | 석유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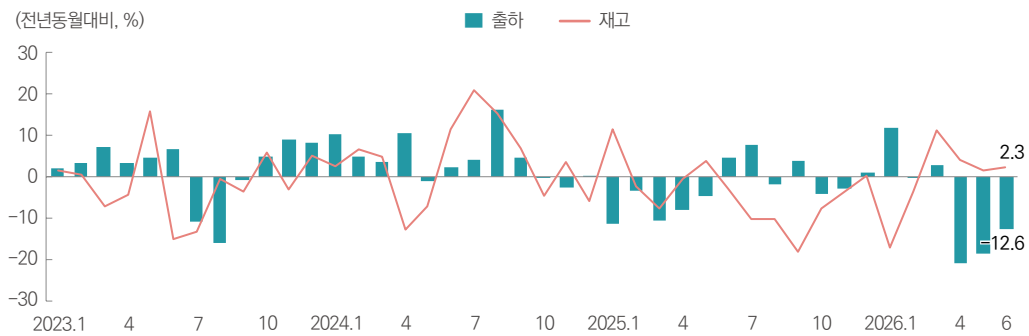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6월 석유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4.1 → (5월) 1.5 → (6월) 2.3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20.7 → (5월) -18.6 → (6월) -12.6

| 그림 19 | 석유 산업 재고 및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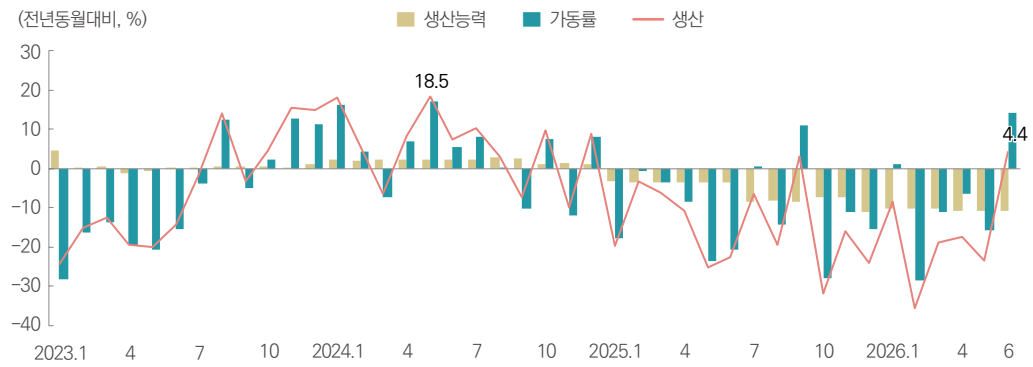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가전: 전년동월대비 6월 「생산」 및 「재고」는 모두 증가

• 6월 가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4%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17.2 → (5월) -23.3 → (6월) 4.4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6.3 → (5월) -15.5 → (6월) 14.3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10.8 → (5월) -10.6 → (6월) -10.6

| 그림 20 | 가전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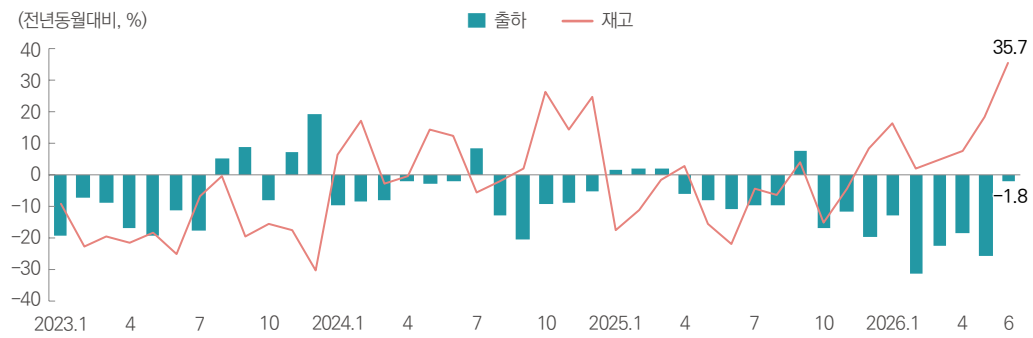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6월 가전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35.7%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7.7 → (5월) 18.6 → (6월) 35.7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18.3 → (5월) -25.6 → (6월) -1.8

| 그림 21 | 가전 산업 재고 및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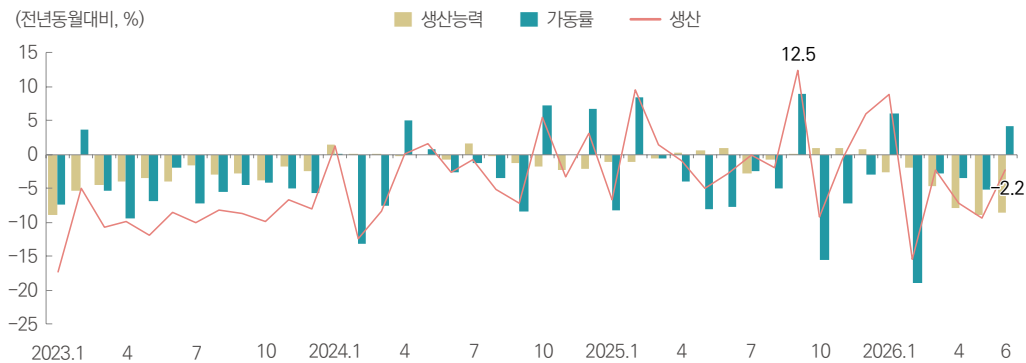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섬유: 전년동월대비 6월 「생산」은 감소, 「재고」는 증가

• 6월 섬유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2%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7.0 → (5월) -9.2 → (6월) -2.2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3.4 → (5월) -5.0 → (6월) 4.2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7.7 → (5월) -8.8 → (6월) -8.4

| 그림 22 | 섬유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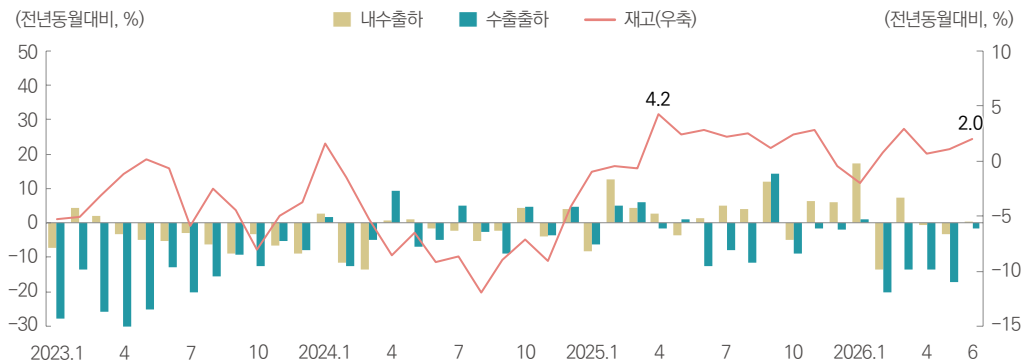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6월 섬유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2.0%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0.6 → (5월) 1.0 → (6월) 2.0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0.7 → (5월) -3.5 → (6월) 0.2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13.6 → (5월) -17.3 → (6월) -1.6

| 그림 23 | 섬유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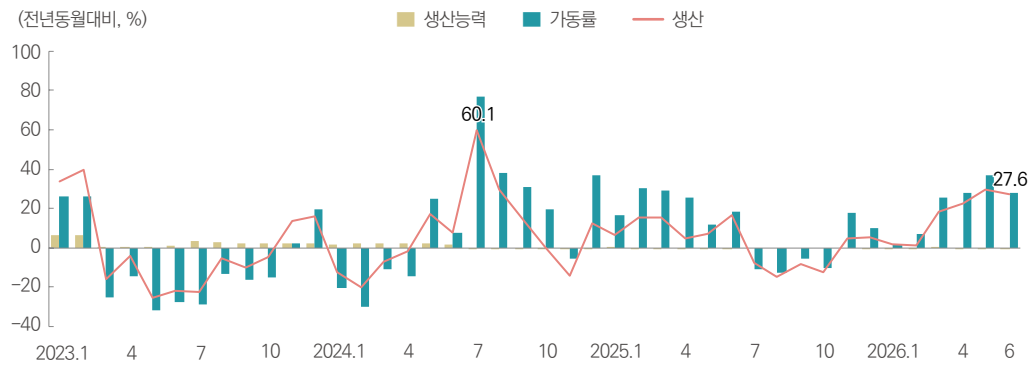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무선통신기기: 전년동월대비 6월 「생산」 및 「재고」는 모두 증가

• 6월 무선통신기기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7.6%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23.0 → (5월) 29.7 → (6월) 27.6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28.2 → (5월) 37.2 → (6월) 28.0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0.1 → (5월) -0.5 → (6월) -0.5

| 그림 24 | 무선통신기기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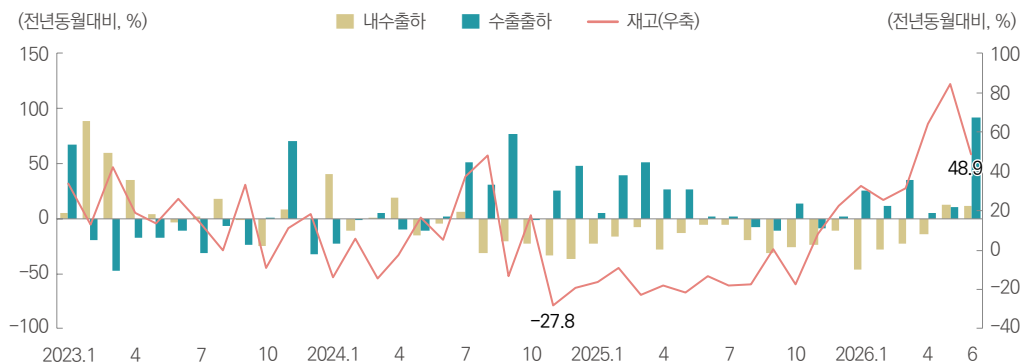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6월 무선통신기기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48.9%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64.6 → (5월) 84.8 → (6월) 48.9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13.1 → (5월) 13.2 → (6월) 11.7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5.4 → (5월) 10.5 → (6월) 91.9

| 그림 25 | 무선통신기기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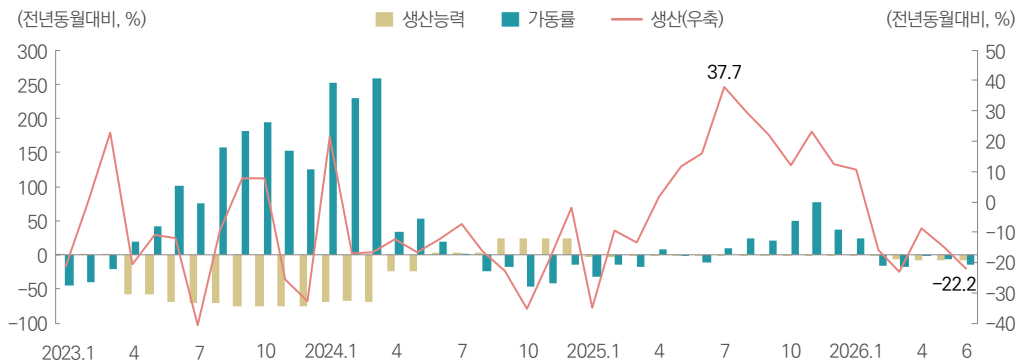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컴퓨터·주변장치: 전년동월대비 6월 「생산」은 감소, 「재고」는 증가

• 6월 컴퓨터·주변장치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2.2%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9.0 → (5월) -15.1 → (6월) -22.2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0.7 → (5월) -6.9 → (6월) -15.5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8.6 → (5월) -7.9 → (6월) -7.9

| 그림 26 | 컴퓨터·주변장치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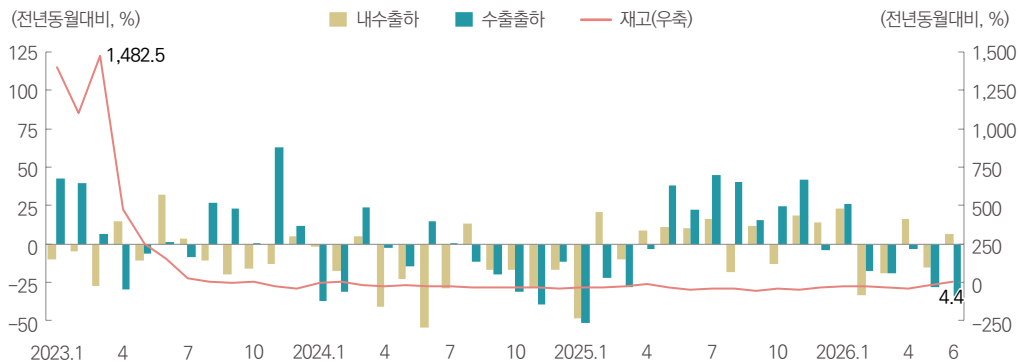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6월 컴퓨터·주변장치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4.4%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39.7 → (5월) -19.2 → (6월) 4.4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16.8 → (5월) -15.1 → (6월) 7.1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2.6 → (5월) -28.1 → (6월) -34.1

| 그림 27 | 컴퓨터·주변장치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BOX 1] 제조업 관련 최근 통상·정책 이슈

■ (통상환경 변화) 미국의 「무역법」 제122조 한시관세¹⁾가(10%) 만료(7.24)됨에 따라, 제301조 관련 조치²⁾가 새로운 통상 변수로 부상

- 한국은 기존 MFN 관세³⁾ 포함 총 12.5% 상한 적용(종전 10% → 12.5%로 실질 부담 확대)
 - 제122조 관세는 국제수지 불균형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2월 20일 서명(2.24 발효)되었고, 최대 150일 시한부로 설계되어 7월 24일 자동 만료됨
 - 제301조는 기존 MFN 관세와 합산해 12.5% 상한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한국·일본·스위스 등에 공통 적용됨
-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제232조 국가안보 명목 관세 적용 품목은 이번 조치 대상서 제외
 - 자동차는 한미 합의에 따른 15% 관세 틀이 그대로 유지됨
 -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은 별도 개편(6.1 포고, 6.8 시행)되어 과세기준을 통관 가격 기준으로 전환하고, 지게차·불도저 등 이동식 기계 관세는 25% → 15%로 인하됨
 - 반도체는 미국 상무부의 제232조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미확정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별도 '과잉생산' 관련 제301조 조사 결과가 8월 이후 추가 변수로 잔존
 - 결과 발표 뒤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는 기존 한미 합의상 15% 상한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고 있음

■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재정경제부, 20조원 규모 한국판 국부펀드 도입방안 발표(7.31)⁴⁾

- 한국투자공사(KIC) 내 '전략투자계정' 신설, 공공기관 지분 현물출자(약 16조원)+물납주식⁵⁾(약 4조원)으로 자본금 마련
 - 기존 KIC는 해외자산 운용 위주로 운영되어 국내 산업 투자에 한계가 존재, 신규 계정 신설로 국내 전략산업 투자가 가능하며 기존 외환보유액 계정과는 분리 운영됨
 - 초기 자본금 20조원+α는 대부분 주식 형태이며, 실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재원은 배당금 등을 포함해 약 6,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됨
- 반도체·AI·소부장·원전·우주항공 등 전략산업에 초장기 인내자본⁶⁾ 투자
 - 투자 대상은 AI·로봇·반도체·바이오·방산·에너지·소부장·원전·우주항공·양자·콘텐츠·SW·보안 등 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에너지클러스터 등 인프라이며, 은행·보험 등 금융업도 검토되고 있음

1) 1974년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22조에 근거해 국제수지 불균형 등 비상 상황 시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15%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한시적 긴급관세. 2026.2.24 10%로 도입되어 7.24 자동 만료됨.

2) 1974년 무역법 제301조(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 조치, 19 U.S.C. §2411)에 근거해 USTR(미국무역대표부,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이 조사를 거쳐 부과하는 관세. 이번 조치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60개 경제권(한국 포함)을 대상으로 함.

3) Most Favored Nation(최혜국 관세): WTO 회원국 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본관세율. 별도의 FTA 협정관세나 301조·232조 등 추가 관세가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

4) 재정경제부,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 2026.7.31.

5) 상속세 및 증여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현금 대신 주식으로 대신 납부(물납)하여 국가가 보유하게 된 주식

6) 인내자본(patient capital): 별도의 만기나 청산 시점을 정하지 않고 장기간 지분을 보유하면서, 단기 수익 회수보다 기업의 성장·산업 경쟁력 제고를 우선하는 투자자본

- 별도의 만가·청산 시점 없이 지분투자와 의결권 행사 방식으로 운영되며, 해외 국부펀드·연기금과의 공동투자를 이끄는 앵커투자자 역할을 수행함
- 국민성장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가 청산할 때 우량기업 지분을 넘겨받는 '이어달리기 투자'(세컨더리 펀드 기능)도 병행됨

■ 8월 중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발의, 2027년 시행 목표

- 개정안에는 설립목적으로 '국부 증진'과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가 추가되고,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이 6명에서 9명으로 확대되며, 이사회 산하에 전략투자위원회·투자자문위원회·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가 신설됨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8.3)⁷⁾

- 기존 R&D·설비투자 기준 공제 → 국내 생산·판매 물량 기준 공제로 전환
 - 투자·R&D가 아닌 실제 생산·판매 실적에 세제혜택을 연동한 첫 사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생산세액공제를 벤치마킹해 이른바 '한국판 IRA'로 불림
 - 내국인이 핵심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생산비용(공제 인정 대상 생산비용) 중 국내지출분이 일정비율 이상이어야 적용되며, 통합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시설이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생산분은 제외됨
- 반도체·배터리 등 6대 성장동력 대상, 생산량×품목별 기준공제액으로 산정
 - 6대 분야는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이며,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생산량당 일정액 공제) 방식이 채택됨
 - 세부 품목별 기준공제액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며, 적자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보조금 지원이 검토되고 있음
- 지역계수 차등 적용(수도권 1.0~인구감소지역 1.5)으로 지방 투자 유도
 - 제도는 2036년까지 10년간 한시 운영되며, 종료 3개년은 공제액이 75% → 50% → 25%로 감소하는 일몰형으로 설계됨

제조업 관련 최근 주요 이슈

구분	발표·시행	핵심 내용	제조업 영향
통상환경 변화	7.24 시행	• 무역법 122조 한시관세(10%) 만료 → 제301조 관련 추가 관세 가능성 MFN 관세 포함 12.5% 상한 적용	• 원가 부담 확대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232조 품목 제외), 과잉생산 관세 변수 잔존
국부펀드 도입	7.31 발표	• KIC 내 전략투자계정 신설, 20조원 규모	• 반도체·AI 등 전략산업에 초장기 인내자본 공급 기반 마련
생산세액 공제 신설	8.3 발표	• 생산·판매 물량 기준 법인세 공제 신설 (반도체·배터리 등 6대 성장동력 대상)	• 반도체·배터리 등 국내 생산 유인, 지방 이전 유도(지역계수 차등 적용)

7)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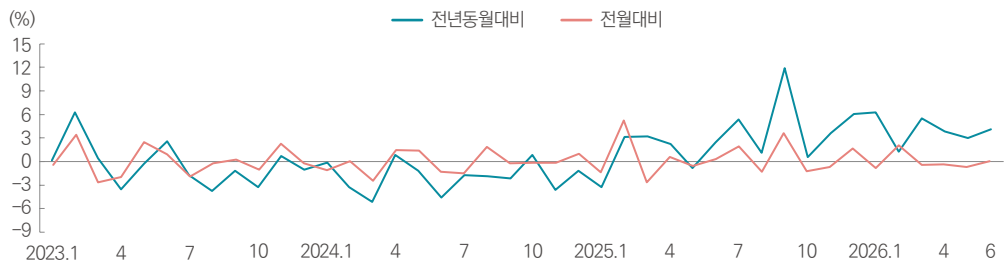
3

서비스업

■ 도매 및 소매업: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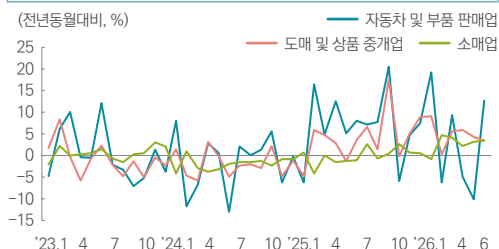
-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12.8%)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4.1% 증가
 -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의 경우 3월 부품사 화재의 복구 이후 부품 수급 정상화, 신차 출고 및 전기자동차 판매 증가에 기인하고, 생활용품 도매업(5.1%)의 경우 마운자로 및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판매가 증가하였기 때문
- 전월대비로는 동일한 수준을 보였는데,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18.8%),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12.3%)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9.5%), 건축자재 도매업(-4.0%) 등은 기저효과로 감소한 데 기인
 -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의 경우 삼성전자 온누리 상품권 지급행사로 가전제품 및 통신기기 판매가 증가하였고,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의 경우 4~5월 농기계 판매량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와 6월 여름철 비수기에 기인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3.8 → (5월) 3.0 → (6월) 4.1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6.4월) -0.4 → (5월) -0.8 → (6월) 0.0
- 재별·상품별 소매판매액지수는 내구재(10.9%)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4.2% 증가
 - 통신기기 및 컴퓨터(16.7%), 가전제품(13.1%), 승용차(12.2%)의 순

| 그림 28 | 도소매업 생산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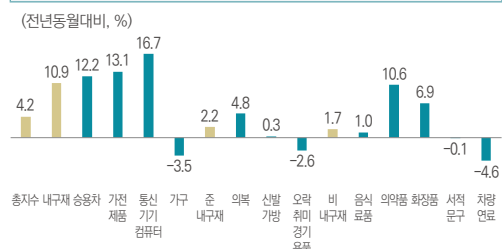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29 | 도소매업 업종별 생산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0 | 재별·상품별 소매판매액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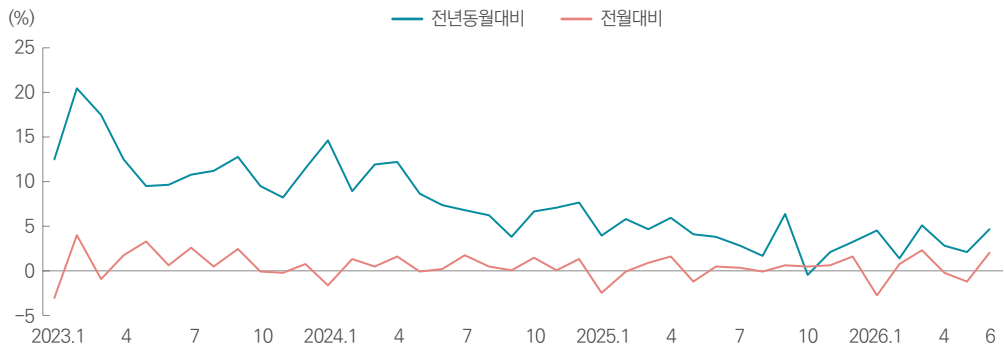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운수 및 창고업: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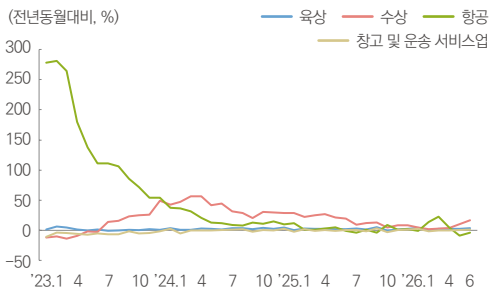
- 운수 및 창고업 생산은 해상운송업(17.1%), 육상운송업(4.9%)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4.7% 증가
 - 해상운송업의 경우 해상 물동량은 감소하였으나 글로벌 해운 운임이 급등한 데 기인
 - ※ 6월 해상 물동량은 1억 2,840만톤으로 전년동월대비 0.9% 감소하였으나 해상운임지수 SCFI와 CCFI 경우 6월말 각각 3,240, 1,710으로 74.0%, 24.9% 증가
 - 육상운송업의 경우 소화물 전문 운송업이 5월(전년동월대비 8.1%)에 이어 6월 9.9% 증가하였는데, 이는 쿠팡 풀필먼트,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수요 증가 등에 기인
 - 항공운송업(-5.5%)의 경우 중동분쟁 이후 고유가로 여객운송업(-6.1%)이 감소한 데 기인
- 전월대비로 해상운송업(7.0%), 항공운송업(3.6%)을 중심으로 2.0% 증가하였는데, 해상운송업의 경우 해상운임비용 상승, 항공여객운송업의 경우 4월(-14.8%)과 5월(-14.0%) 생산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2.7 → (5월) 2.0 → (6월) 4.7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6.4월) -0.2 → (5월) -1.3 → (6월) 2.0

| 그림 31 | 운수·창고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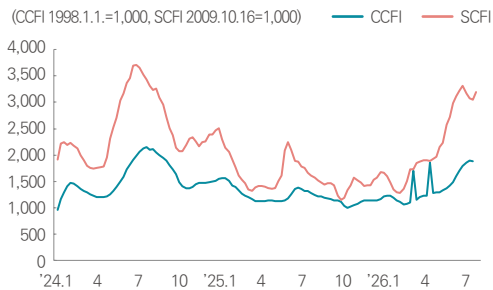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터,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2 | 운수·창고업 업종별 생산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터,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3 | 해상운임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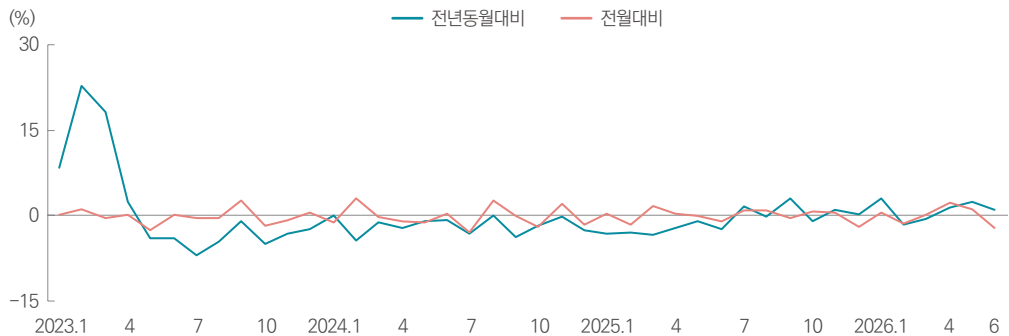


자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 숙박 및 음식업: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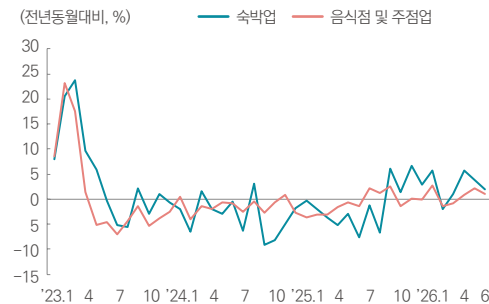
- 숙박 및 음식업 생산은 숙박업(1.9%)과 음식점업(1.0%)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 K-컬처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른 글로벌 방한 수요 증가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데 기인
 - ※ 외국인 관광객은 2026년 6월 약 19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1% 증가하였는데,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47.7만명, 전년동월대비 36.2% 증가), 일본(28.7만명, 21.3%), 대만(16.5만명, 35.3%), 필리핀(5.6만명, 9.5%), 인도네시아(3.2만명, 24.9%) 등의 순
 - 음식업의 경우 5월 말부터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기인하며,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식(-1.2%)을 제외한 모든 업종(기관 구내식당업 7.1%, 기타간이음식점업 3.9%, 외국식 음식점업 2.0%)에서 증가
- 전월대비로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2%), 숙박업(-4.8%)을 중심으로 2.3% 감소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1.4 → (5월) 2.3 → (6월) 1.0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6.4월) 2.4 → (5월) 1.1 → (6월) -2.3

| 그림 34 | 숙박·음식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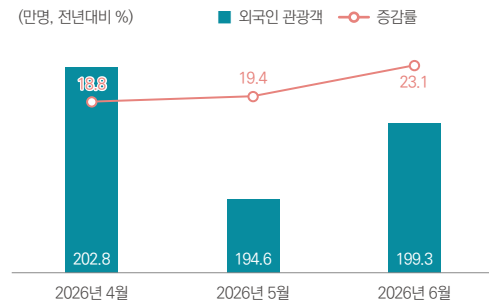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5 | 숙박·음식업 업종별 생산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6 | 외국인 관광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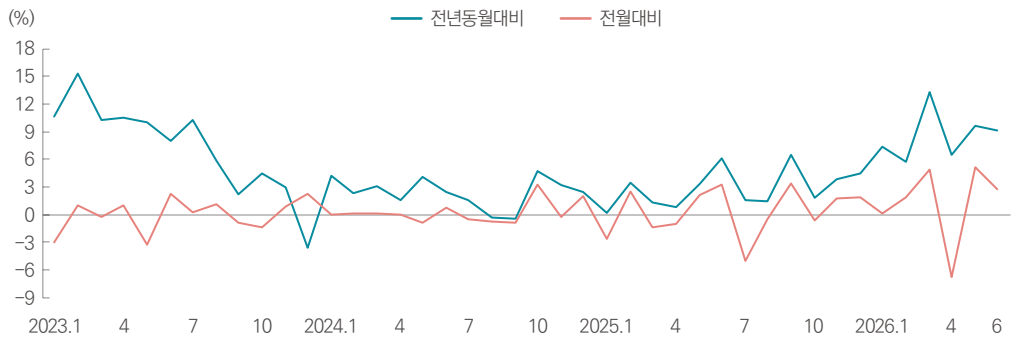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 금융 및 보험업: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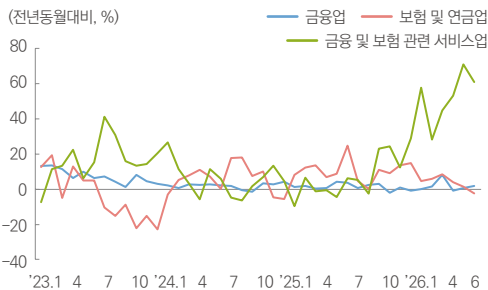
-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은 금융지원서비스업(88.4%),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33.6%)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9.2% 증가
 - 국내 주가지수 상승에 따른 주식거래량 증가와 펀드·ETF·신탁 등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늘면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수익이 확대된 데 기인
 - ※ 주식거래대금은 6월 1,268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8.3% 증가
 -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 계약고)은 6월 2,301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7.5% 증가
- 전월대비로 기타금융업(10.0%), 금융지원서비스업(7.7%)을 중심으로 2.8% 증가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6.5 → (5월) 9.7 → (6월) 9.2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6.4월) -6.8 → (5월) 5.2 → (6월) 2.8

| 그림 37 | 금융·보험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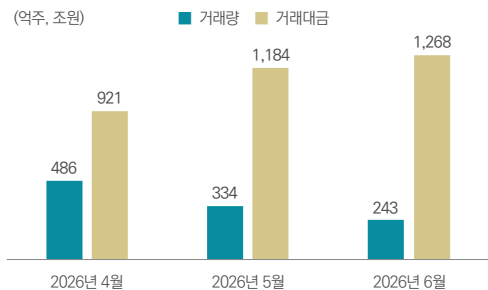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8 | 금융·보험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9 | 주식거래량 및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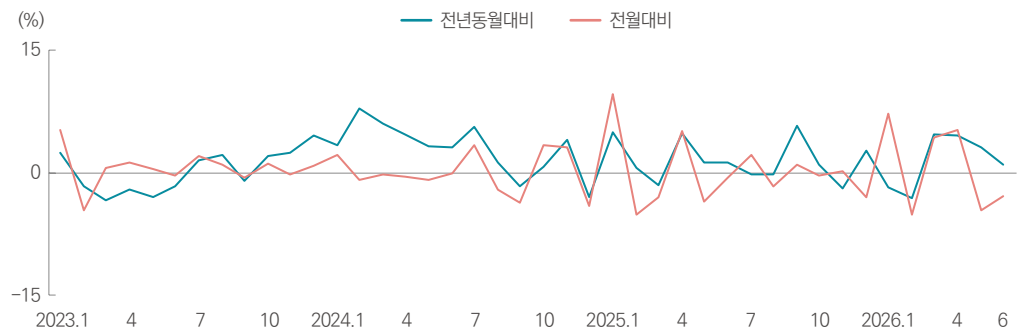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 정보통신업: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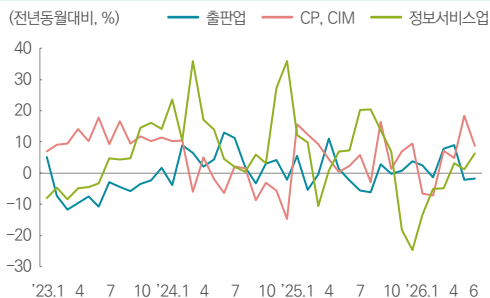
- 정보통신업 생산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8.9%), 정보서비스업(6.4%)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의 경우 제조·금융업의 AI·디지털 전환(DX) 투자 확대, 생성형 AI 서비스 정착,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수요의 구조적 증가에 기인
 - ※ ICT 품목 설비투자지수는 2026년 6월 전년동월대비 29.6% 증가
- 전월대비로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13.7%),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7.0%), 공영 우편업(-15.7%)을 중심으로 3.0% 감소
 - 공영우편업의 경우 5월 재·보궐선거 관련 우편물 등이 배송되면서 전월대비 22.7% 증가한 기저효과에 기인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4.6 → (5월) 3.1 → (6월) 1.0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6.4월) 5.3 → (5월) -4.7 → (6월) -3.0

| 그림 40 | 정보통신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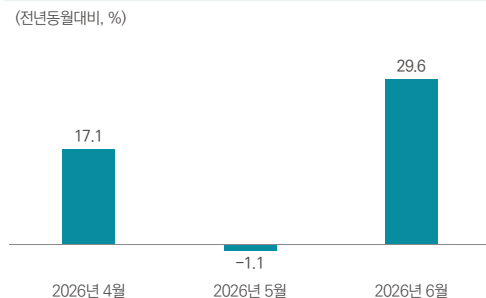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1 | 정보통신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2 | ICT 품목 설비투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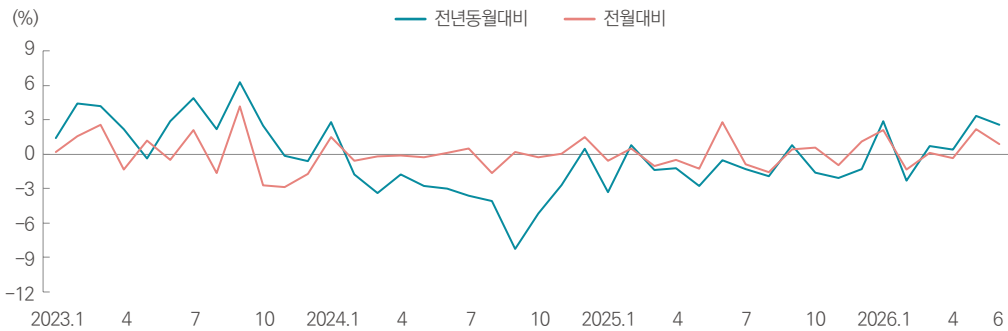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설비투자지수」

■ 부동산업: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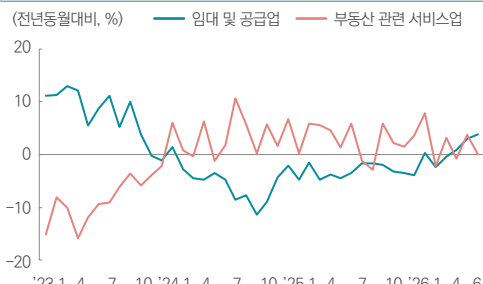
- 부동산업 생산은 부동산 임대업(8.0%), 부동산관리업(4.0%)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6% 증가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한 데 기인
 - ※ '26.2Q 오피스 임대가격지수는 104.1(2024.2Q=100)로 서울(2.56%)과 경기(0.61%)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61% 증가
 - ※ '26.2Q 상가 임대가격지수는 서울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전년동기대비 감소
 - 이에 반해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8.1%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주택 매매거래량이 감소한 데 기인⁸⁾
 - ※ '26.6월 주택매매거래량은 68,819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8% 감소
- 전월대비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1.6%)을 중심으로 0.9% 증가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0.4 → (5월) 3.4 → (6월) 2.6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6.4월) -0.4 → (5월) 2.2 → (6월) 0.9

| 그림 43 | 부동산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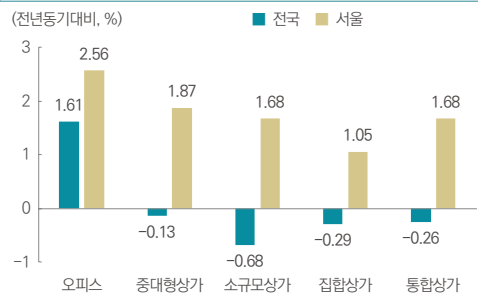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4 | 부동산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5 |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지수 증감률('26.2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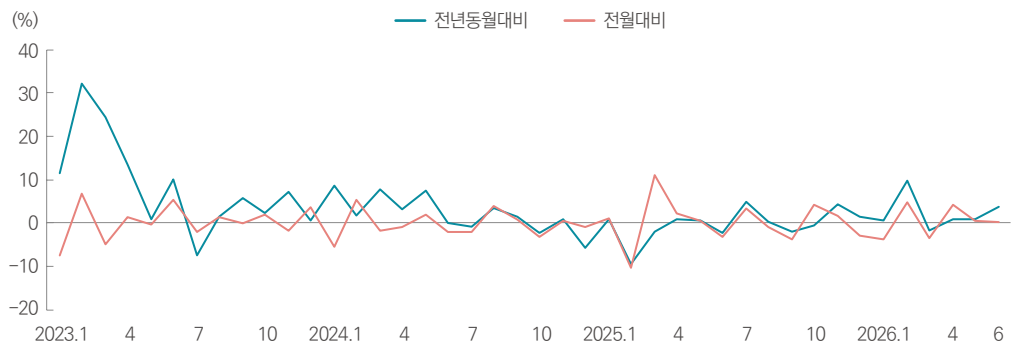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8) 최근 주택시장 동향은 [Box 2]를 참조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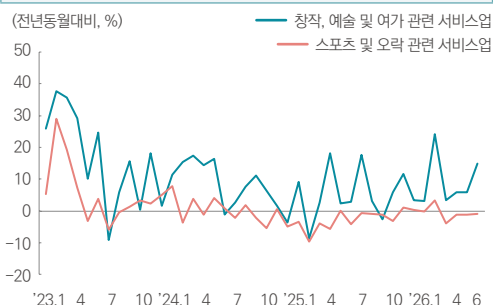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생산은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4.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13.4%)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7% 증가
 -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관련 종사자의 퇴직급여 지급 증가 등에 기인
 - ※ 참고로 '26.6월 공연티켓 판매액은 1,27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5% 감소
 - 이에 반해 경기장 운영업의 경우 국내 프로축구(K리그)가 2026 북중미 월드컵 개최로 휴식기를 가짐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13.0% 감소
- 전월대비로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3%)을 중심으로 0.3% 증가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0.8 → (5월) 0.9 → (6월) 3.7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6.4월) 4.2 → (5월) 0.4 → (6월) 0.3

| 그림 46 | 예술, 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생산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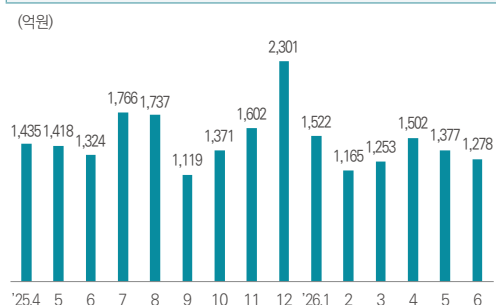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7 | 예술스포츠·여가업 업종별 생산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8 | 공연티켓 판매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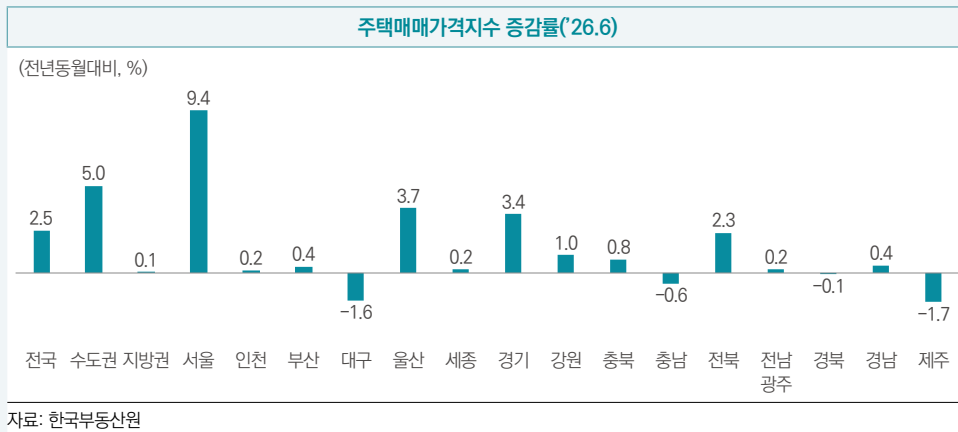


자료: 공연예술통합전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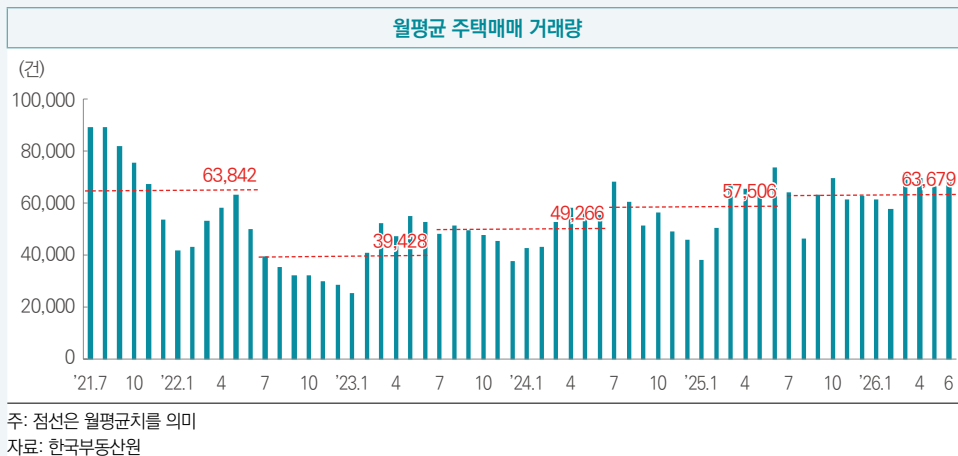
[BOX 2] 최근 주택시장 동향

■ 주택매매가격과 거래량은 최근 1년간 서울, 울산, 경기 등을 중심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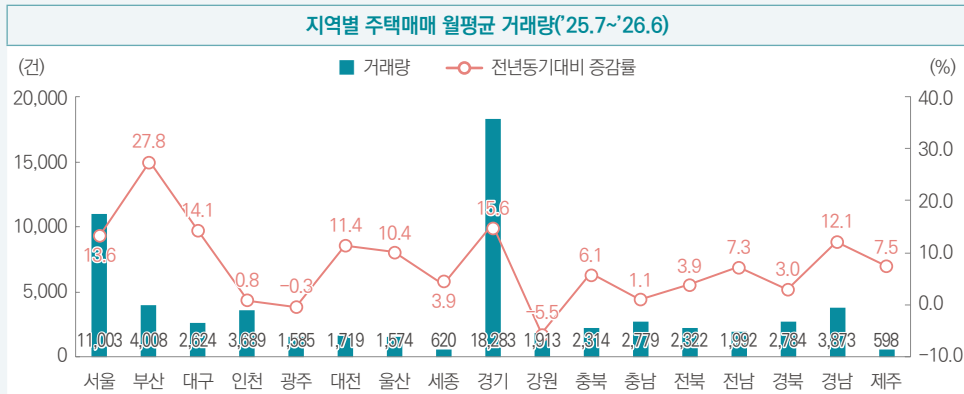
-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26년 6월 전년동월대비 2.5% 상승
 - 서울(9.4%), 울산(3.7%), 경기(3.4%), 전북(2.3%) 등의 순으로 증가



- 주택매매거래량은 최근 1년간 월평균 63,679건으로 2021년 수준을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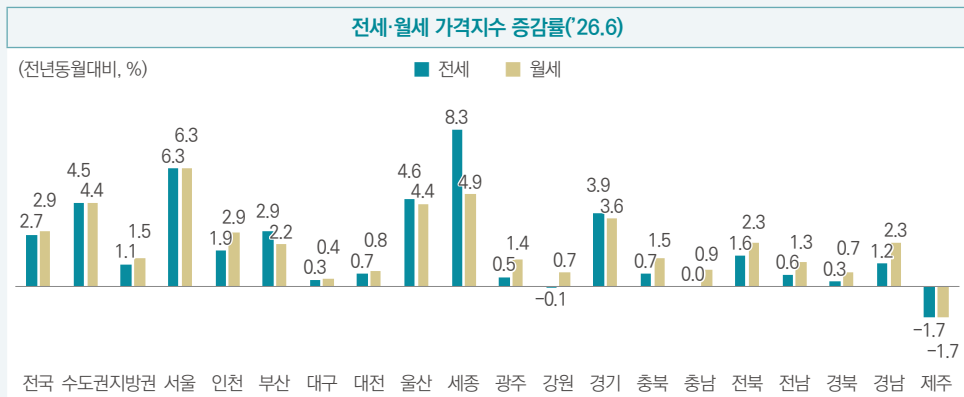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18,283건, 전년동기대비 15.6%), 서울(11,003건, 13.6%), 부산(4,008건, 27.8%), 인천(3,689건, 0.8%)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한국부동산원

- 주택 전세 및 월세가격지수는 2026년 6월 전년동월대비 각각 2.7%, 2.9% 상승
 - 전세의 경우, 세종(8.3%), 서울(6.3%), 울산(4.6%), 경기(3.9%), 부산(2.9%)의 순
 - 월세의 경우, 서울(6.3%), 세종(4.9%), 울산(4.4%), 경기(3.6%), 인천(2.9%)의 순



자료: 한국부동산원

- 주택전월세거래량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동안 월평균 23.3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보다 약 1만건 증가하였으며, 월세 거래량 비중도 증가세
 - 2026년 6월 누계 월세거래량 비중(보증부월세·반전세 등)은 68.4%로 전년동기대비 7.0%p 증가
 - ※ 1~6월 누계 월세거래량 비중(%): ('24) 57.5 → ('25) 61.4 → ('26) 68.4
- 미분양 주택수는 2026년 6월 67,464호이며, 인천(4,204호, 2024년 12월 대비 36.2%), 부산(8,071호, 71.0%), 충남(8,894호, 133.2%)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

II

수출

1 13대 산업 수출

■ 2026년 7월 중 「총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 총수출은 988.9억달러로 국제무역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62.8% 증가
 - 수출액(억달러): ('26.4월) 857.4 → (5월) 876.1 → (6월) 1,021.7 → (7월) 988.9
 -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47.7 → (5월) 53.0 → (6월) 70.7 → (7월) 62.8
 - 증감률(전월대비, %): ('26.4월) -1.8 → (5월) 2.2 → (6월) 16.6 → (7월) -3.2

■ 2026년 7월 중 「주요 13대 산업⁹⁾¹⁰⁾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 전년동월대비: 13대 산업의 수출은 812.5억달러로 가전(-4.2%)을 제외한 반도체(178.8%), 컴퓨터·주변장치(153.7%)를 중심으로 모든 산업이 증가하며 75.5% 증가
 - 수출액(억달러): ('26.4월) 691.7 → (5월) 724.6 → (6월) 845.5 → (7월) 812.5
 - 수출액(전년동월대비, %): ('26.4월) 58.8 → (5월) 64.4 → (6월) 85.1 → (7월) 75.5
- 전월대비: 13대 산업 수출은 6월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로 반도체(-8.5%), 컴퓨터·주변장치(-7.9%) 등이 감소하며 전월대비 3.9% 감소
 - 증감률(전월대비, %): ('26.4월) -2.9 → (5월) 4.8 → (6월) 16.7 → (7월) -3.9
- 반도체 수출은 첨단산업의 강한 수요가 이어지며 지난 달에 이어 400억달러가 넘는 월별 수출액을 기록하면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반도체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5.7월) 147.1(31.5%) → ('26.7월) 410.1(178.8%)
 - DRAM 고정가격(DDR4 8Gb, 달러): ('26.4월) 16.0 → (5월) 20.0 → (6월) 21.0 → (7월) 24.0
- 자동차 수출은 중고차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자동차 수출의 호조세에 힘입어 7월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며 전년동월대비 수출이 증가
 - 자동차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5.7월) 77.4(4.3%) → ('26.7월) 81.9(5.8%)

9) 생산과 수출의 분류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통계청의 업종별 산업분류(KSIC)와 산업통상부의 품목별 산업분류기준(MTI)를 매칭하여 분류

10) 자동차(수송기계, 자동차부품을 포함),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주변장치 및 이차전지, 바이오헬스를 포함

- 완성차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5.7월) 58.3(8.8%) → ('26.7월) 62.4(7.0%)
- 자동차부품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5.7월) 19.1(-7.3%) → ('26.7월) 19.5(2.2%)
- 일반기계 수출은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 미국의 관세 인하와 같은 상하방 요인이 함께 작용한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수출이 증가
 - 일반기계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5.7월) 42.8(-17.4%) → ('26.7월) 45.3(5.9%)

| 표 1 | 산업별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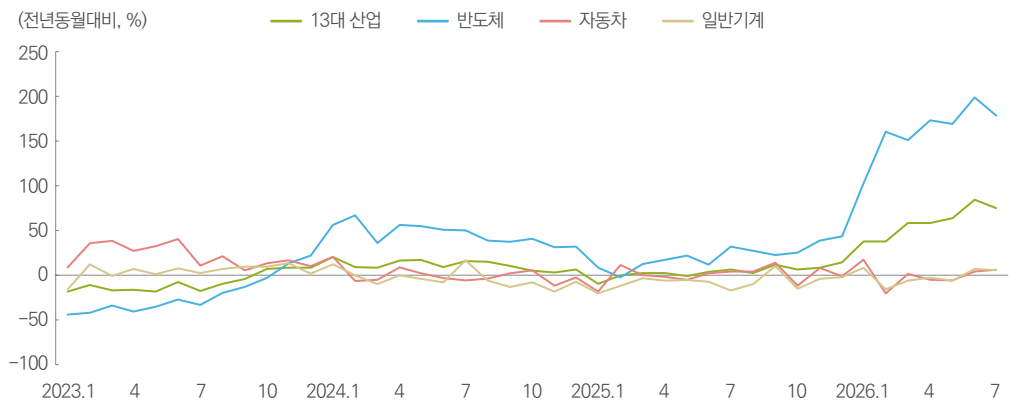
(단위: 억달러,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5				2026				
	4월	5월	6월	7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대비
총수출(수출액)	580.4	572.6	598.3	607.2	857.4	876.1	1021.7	988.9	-3.2
총수출	3.4	-1.3	4.3	5.7	47.7	53.0	70.7	62.8	
13대 산업(수출액)	435.6	440.8	456.7	463.1	691.7	724.6	845.5	812.5	-3.9
13대 산업	1.9	-1.1	3.4	5.9	58.8	64.4	85.1	75.5	
반도체	17.2	21.2	11.5	31.5	173.5	169.4	199.5	178.8	-8.5
자동차	-2.2	-5.5	2.3	4.3	-5.7	-6.1	4.0	5.8	-3.1
화학	-10.8	-17.5	-12.6	-7.7	8.5	10.5	18.2	10.2	3.3
일반기계	-6.2	-5.2	-7.4	-17.4	-2.7	-6.3	7.5	5.9	10.9
석유	-15.9	-20.8	1.0	-5.7	36.7	46.5	48.6	34.0	2.3
철강	7.5	-8.8	-3.1	-1.0	-10.4	-2.8	9.3	4.3	10.4
조선	17.3	4.5	64.1	107.7	44.2	16.5	12.9	46.9	16.3
컴퓨터주변장치	-10.3	-10.0	-15.9	-12.9	170.5	133.7	183.9	153.7	-7.9
무선통신기기	26.6	3.8	-3.8	-17.8	11.6	12.5	52.0	51.0	17.1
섬유	-1.3	-11.2	-7.9	-4.1	6.1	-6.7	11.5	3.4	-3.8
가전	-4.7	-14.9	-15.5	-12.0	-19.7	-21.9	0.4	-4.2	9.7
이차전지	13.1	-18.5	-19.6	-21.1	-6.6	31.1	17.5	17.2	-2.1
바이오헬스	12.1	6.6	38.3	-1.8	18.3	5.2	14.0	30.4	-17.8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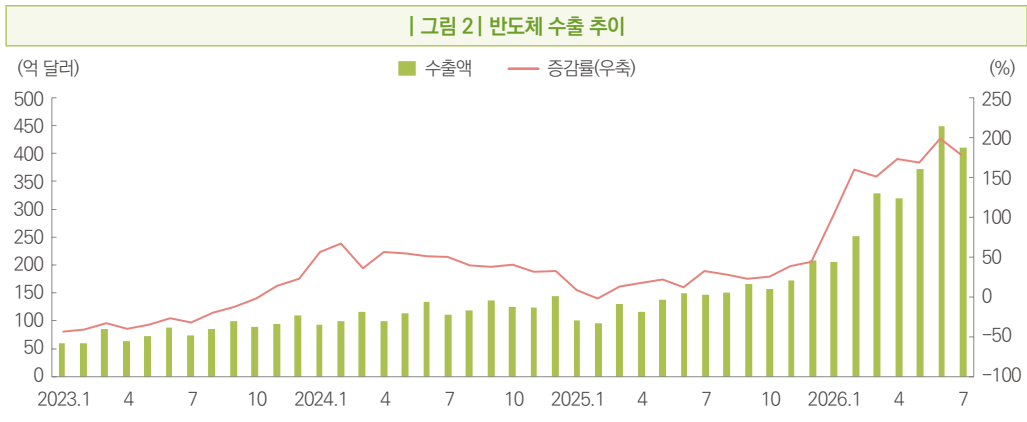
| 그림 1 | 13대 산업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반도체: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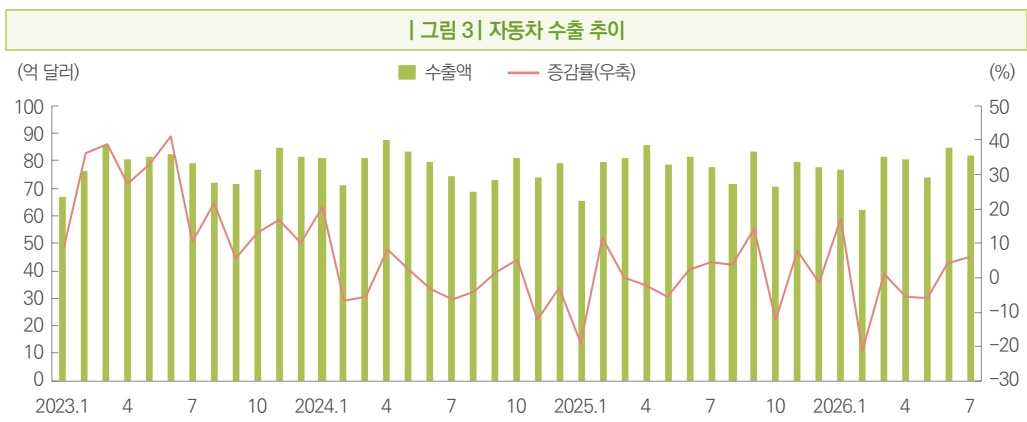
-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78.8% 증가하여 410.1억달러를 기록
 - 반도체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5월) 169.4 → (6월) 199.5 → (7월) 178.8
 - 반도체 수출액(억달러): ('26.5월) 371.6 → (6월) 448.2 → (7월) 410.1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자동차: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8% 증가하여 81.9억달러를 기록
 - 자동차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5월) -6.1 → (6월) 4.0 → (7월) 5.8
 - 자동차 수출액(억달러): ('26.5월) 73.7 → (6월) 84.5 → (7월) 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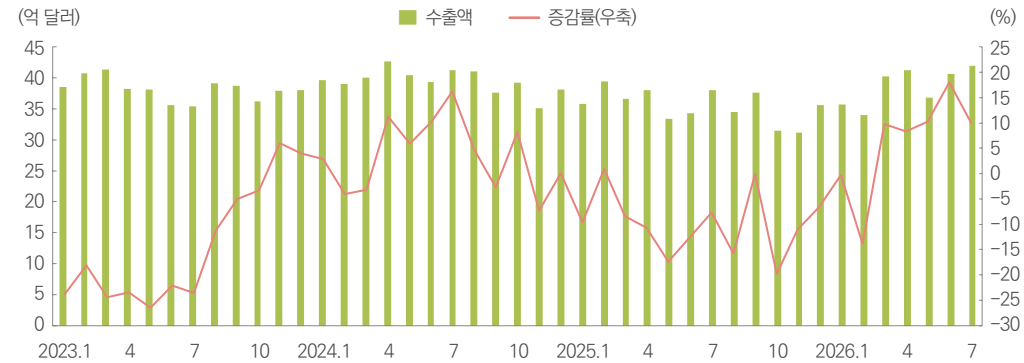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화학: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2% 증가하여 41.9억달러를 기록
 - 화학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5월) 10.5 → (6월) 18.2 → (7월) 10.2
 - 화학 수출액(억달러): ('26.5월) 36.8 → (6월) 40.5 → (7월) 41.9

| 그림 4 | 화학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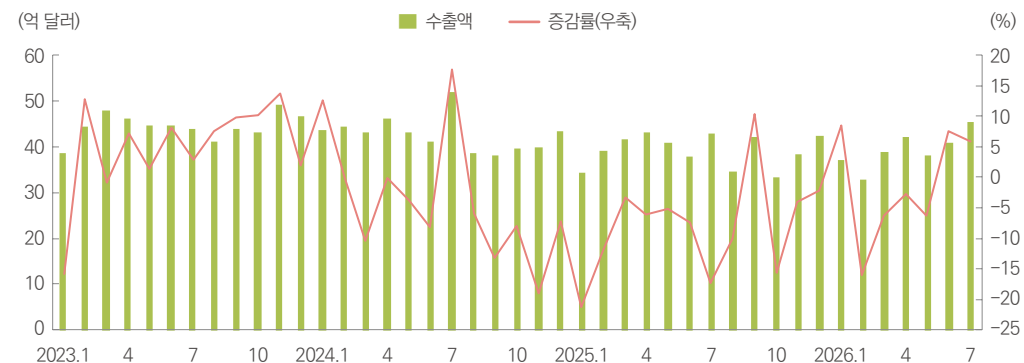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일반기계: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9% 증가하여 45.3억달러를 기록
 - 일반기계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5월) -6.3 → (6월) 7.5 → (7월) 5.9
 - 일반기계 수출액(억달러): ('26.5월) 38.2 → (6월) 40.8 → (7월) 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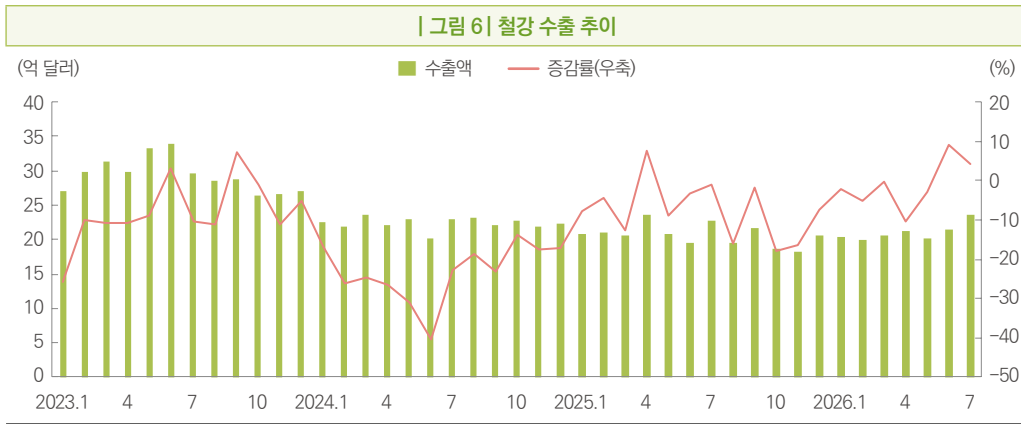
| 그림 5 | 일반기계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철강: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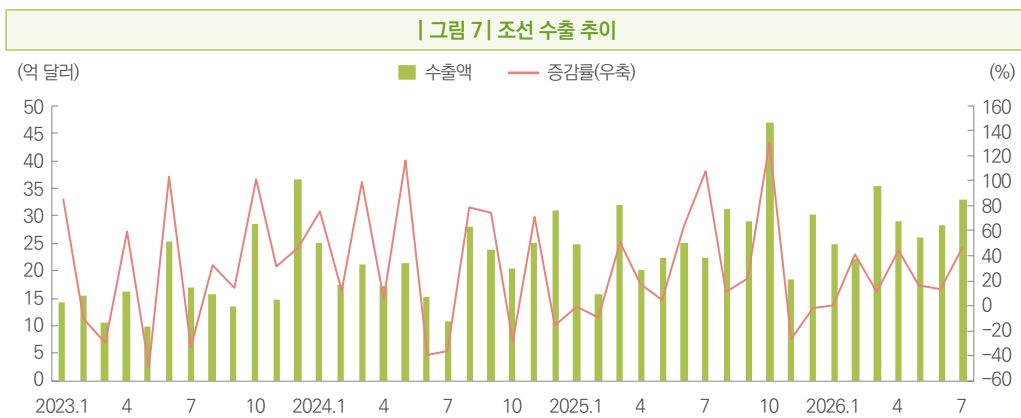
-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3% 증가하여 23.6억달러를 기록
 - 철강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5월) -2.8 → (6월) 9.3 → (7월) 4.3
 - 철강 수출액(억달러): ('26.5월) 20.3 → (6월) 21.4 → (7월) 23.6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조선: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6.9% 증가하여 32.9억달러를 기록
 - 조선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5월) 16.5 → (6월) 12.9 → (7월) 46.9
 - 조선 수출액(억달러): ('26.5월) 26.1 → (6월) 28.3 → (7월) 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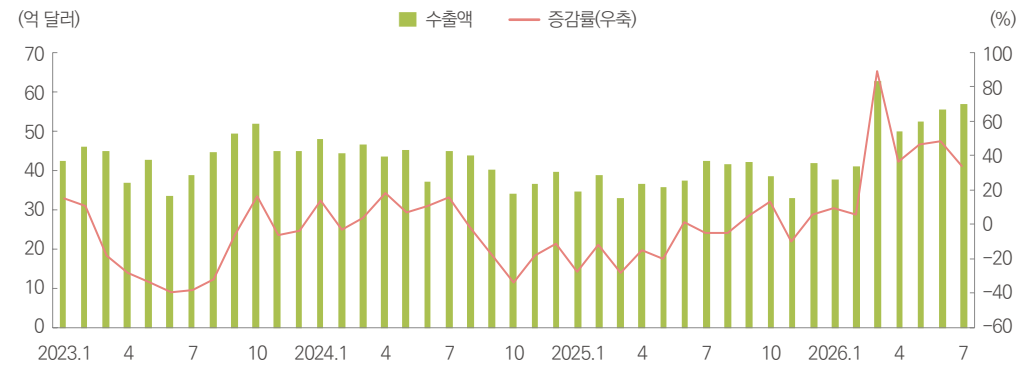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석유: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4.0% 증가하여 56.8억달러를 기록
 - 석유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5월) 46.5 → (6월) 48.6 → (7월) 34.0
 - 석유 수출액(억달러): ('26.5월) 52.5 → (6월) 55.5 → (7월) 56.8

| 그림 8 | 석유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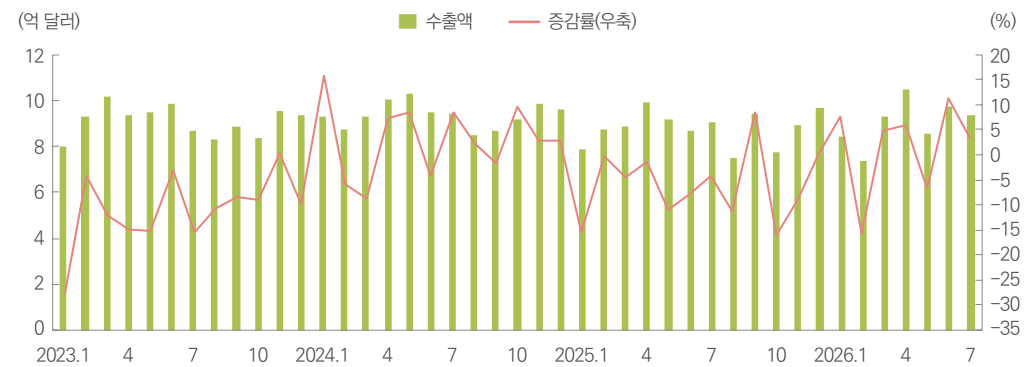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섬유: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4% 증가하여 9.3억달러를 기록
 - 섬유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5월) -6.7 → (6월) 11.5 → (7월) 3.4
 - 섬유 수출액(억달러): ('26.5월) 8.5 → (6월) 9.7 → (7월) 9.3

| 그림 9 | 섬유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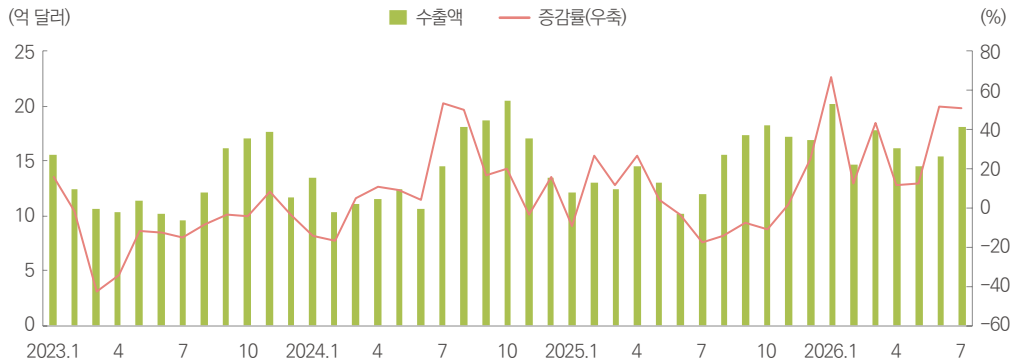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무선통신기기: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1.0% 증가하여 18.1억달러를 기록
 - 무선통신기기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5월) 12.5 → (6월) 52.0 → (7월) 51.0
 -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억달러): ('26.5월) 14.6 → (6월) 15.5 → (7월) 18.1

| 그림 10 | 무선통신기기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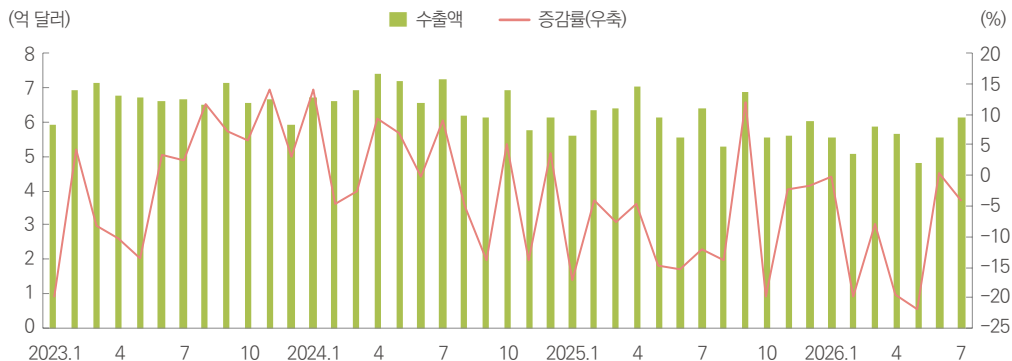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가전: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2% 감소하여 6.1억달러를 기록
 - 가전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5월) -21.9 → (6월) 0.4 → (7월) -4.2
 - 가전 수출액(억달러): ('26.5월) 4.8 → (6월) 5.6 → (7월) 6.1

| 그림 11 | 가전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컴퓨터·주변장치: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53.7% 증가하여 64.0억달러를 기록
 - 컴퓨터·주변장치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5월) 133.7 → (6월) 183.9 → (7월) 153.7
 - 컴퓨터·주변장치 수출액(억달러): ('26.5월) 56.3 → (6월) 69.5 → (7월) 64.0

| 그림 12 | 컴퓨터·주변장치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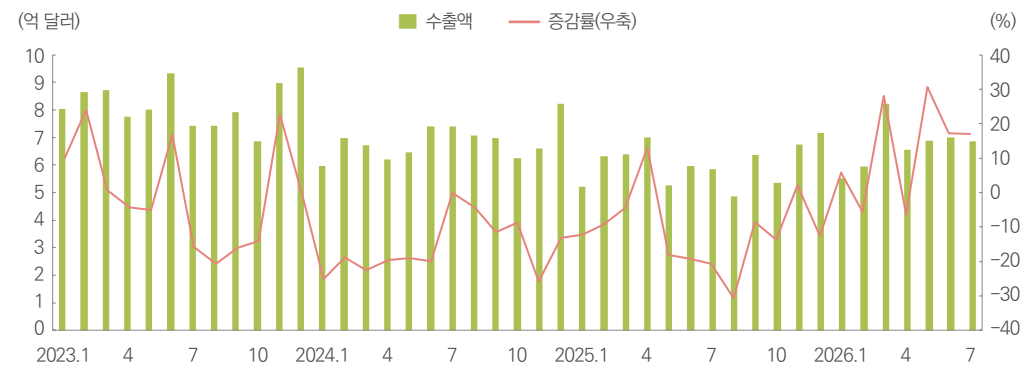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이차전지: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7.2% 증가하여 6.8억달러를 기록
 - 이차전지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5월) 31.1 → (6월) 17.5 → (7월) 17.2
 - 이차전지 수출액(억달러): ('26.5월) 6.9 → (6월) 7.0 → (7월)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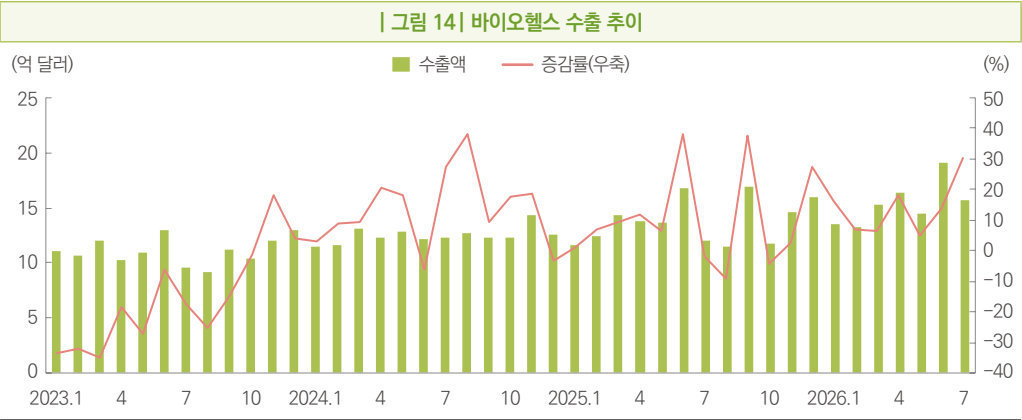
| 그림 13 | 이차전지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바이오헬스: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0.4% 증가하여 15.7억달러를 기록
 - 바이오헬스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5월) 5.2 → (6월) 14.0 → (7월) 30.4
 - 바이오헬스 수출액(억달러): ('26.5월) 14.4 → (6월) 19.2 → (7월) 15.7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주요 유망소비재¹¹⁾: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2.8% 증가, 전월대비 5.8% 감소하여 44.8억 달러를 기록
 - 주요 유망소비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5월) 7.5 → (6월) 18.7 → (7월) 22.8
 - 주요 유망소비재 수출액(억달러): ('26.5월) 40.6 → (6월) 47.6 → (7월) 44.8

■ 표 2 | 주요 유망소비재 수출 동향

(단위: 억달러, 전년동월대비 %)

구분	2025				2026				전월대비
	4월	5월	6월	7월	4월	5월	6월	7월*	
유망소비재(수출액)	39.7	37.8	40.1	36.5	46.9	40.6	47.6	44.8	-5.8
유망소비재	6.6	5.2	20.9	2.3	18.1	7.5	18.7	22.8	
농수산물	8.5	5.5	5.0	3.3	8.7	4.4	16.8	2.3	-6.7
화장품	20.7	8.3	20.9	17.9	31.3	23.4	41.2	37.8	1.7
패션의류	8.0	-2.5	-1.0	0.5	28.7	1.0	21.2	4.8	-15.8
생활유아용품	-16.7	-5.9	15.2	-3.0	1.2	-4.8	-4.3	14.1	12.7
의약품	14.6	13.7	52.9	-10.2	26.4	5.4	16.8	46.8	-21.1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11)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새로운 수출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한 5대 유망소비재를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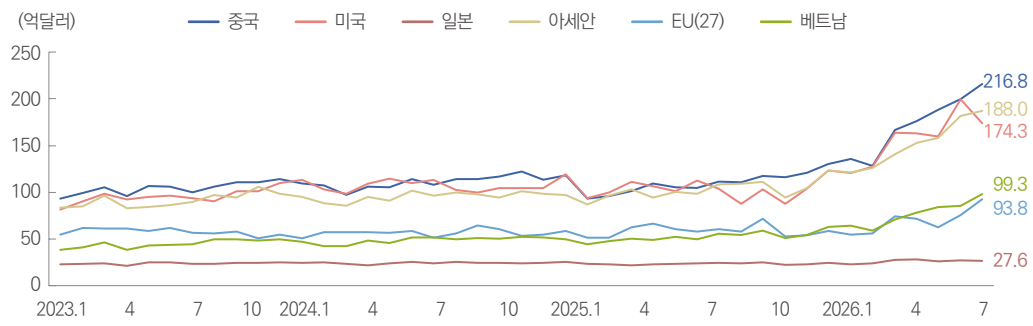
2

10대 주요 지역별 수출

■ 7월 10대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은 CIS를 제외한 지역에서 모두 증가

- 대중국 수출은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에 대한 강한 수요가 이어지며 전년동월대비 96.2% 증가
 - 대중국 수출액 증감률(전년동기대비, %)¹²⁾: (반도체) 115.6%, (무선통신기기) -31.4%, (석유화학) -14.1%
- 대미국 수출은 완성차, 일반기계 등의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컴퓨터 등 IT 품목에 대한 강한 수요로 전년동월대비 68.7% 증가
 - 대미국 수출액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반도체) 187.9%, (컴퓨터) 524.6%, (완성차) -5.6%, (일반기계) -5.7%

| 그림 15 | 주요 지역별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 표 3 | 주요 지역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가공단계별	2025				2026				
	4월	5월	6월	7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대비
중국	3.8	-8.2	-2.6	-3.0	62.5	80.8	92.0	96.2	8.3
미국	-7.0	-8.2	-0.8	1.5	54.1	59.2	78.6	68.7	-12.9
일본	-5.5	-9.0	2.4	-4.4	29.4	12.0	15.8	11.0	-2.5
아세안	4.0	-1.3	2.5	9.3	63.0	58.2	85.9	73.7	3.1
EU(27)	17.2	3.9	14.4	8.7	8.5	3.2	31.8	55.7	23.1
중동	1.9	-8.3	17.1	-36.6	-24.9	-8.0	-8.4	24.7	1.6
중남미	3.9	-11.9	3.2	3.4	10.1	43.1	36.2	25.7	1.2
CIS	37.0	33.5	18.5	21.2	-11.9	-19.2	-0.5	-8.6	2.0
베트남	6.3	2.4	-3.7	11.5	63.3	61.5	74.6	79.3	15.2
인도	8.6	-3.7	1.8	10.2	41.9	21.0	32.9	45.0	22.8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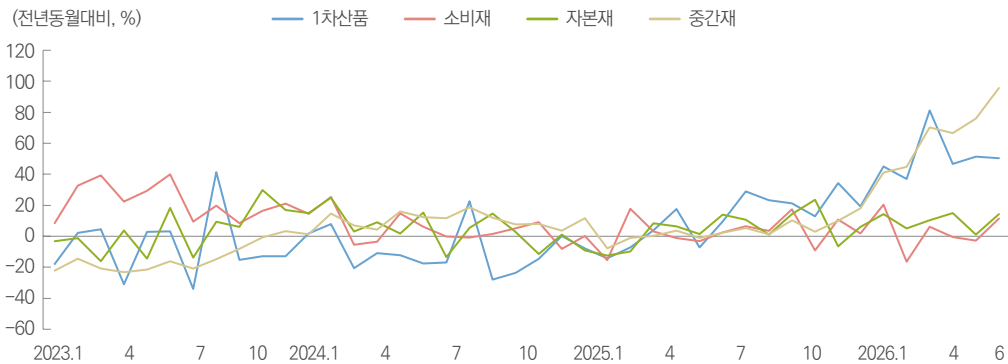
12) 해당 월 1일부터 25일까지의 통계

3 가공단계별 수출

■ 6월 가공단계별 「수출」 중 중간재가 전년동월대비 가장 크게 증가

- 1차상품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0.5% 증가, 전월대비 19.5% 증가
 - 1차상품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47.0 → (5월) 51.6 → (6월) 50.5
- 소비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1.4% 증가, 전월대비 14.9% 증가
 - 소비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0.6 → (5월) -2.9 → (6월) 11.4
- 자본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4% 증가, 전월대비 14.1% 증가
 - 자본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15.1 → (5월) 1.1 → (6월) 14.4
- 중간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5.9% 증가, 전월대비 16.4% 증가
 - 중간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4월) 66.7 → (5월) 76.2 → (6월) 95.9

| 그림 16 | 가공단계별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 표 4 | 가공단계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5			2026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전월대비
1차상품	17.4	-7.5	9.6	47.0	51.6	50.5	19.5
소비재	-1.4	-3.4	2.4	-0.6	-2.9	11.4	14.9
자본재	6.3	1.3	14.3	15.1	1.1	14.4	14.1
중간재	3.4	-1.5	1.9	66.7	76.2	95.9	16.4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한국무역협회



에너지·원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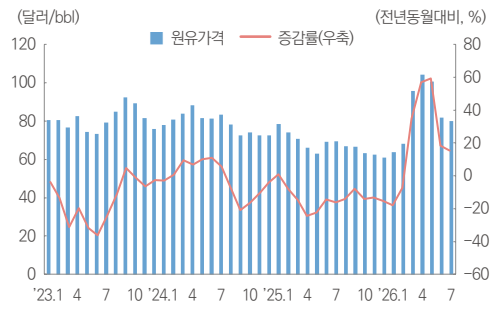
1

에너지

■ 2026년 7월 「원유」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월대비 하락

- 7월 원유 가격은 중동발 공급 불안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로는 상승, OPEC+의 증산 확대 등으로 전월대비 하락
 - 원유 가격은 배럴당 79.8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5.3% 상승, 전월대비 2.3% 하락
 - 원유가격(달러/bbl): ('26.5월) 100.4 → (6월) 81.7 → (7월) 79.8
 - 원유가격(전년동월대비, %): ('26.5월) 60.1 → (6월) 18.2 → (7월) 15.3

| 그림 1 | 원유 가격 추이



자료: 세계은행

| 표 1 | 원유 가격 동향

구분	2025	2026			(단위: 달러/bbl, %)	
	7월	5월	6월	7월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Brent	71.0	107.5	85.4	83.4	17.5	-2.3
Dubai	69.2	94.7	77.7	76.7	10.8	-1.3
WTI	67.4	99.1	81.9	79.4	17.8	-3.1
평균 ¹⁾	69.2	100.4	81.7	79.8	15.3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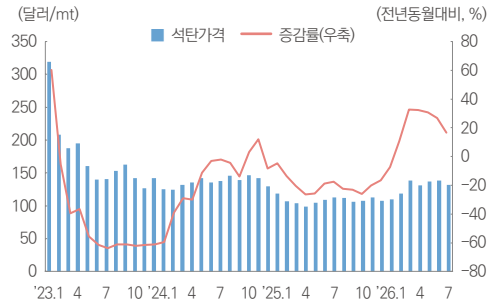
주: 1) Brent, Dubai, WTI의 평균

자료: 세계은행

■ 2026년 7월 「석탄」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월대비 하락

- 7월 석탄 가격은 중동발 LNG 공급 불안에 따른 대체수요와 하절기 발전용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상승, 중국의 석탄화력 수요 둔화 등으로 전월대비 하락
 - 석탄 가격은 톤당 131.9달러(호주)로 전년동월대비 16.8% 상승, 전월대비 4.8% 하락
 - 석탄 가격(달러/mt): ('26.5월) 136.9 → (6월) 138.5 → (7월) 131.9
 - 석탄 가격(전년동월대비, %): ('26.5월) 31.1 → (6월) 27.0 → (7월) 16.8

| 그림 2 | 석탄 가격 추이



주: 호주시장 기준

자료: 세계은행

| 표 2 | 석탄 원산지별 가격 동향

(단위: 달러/m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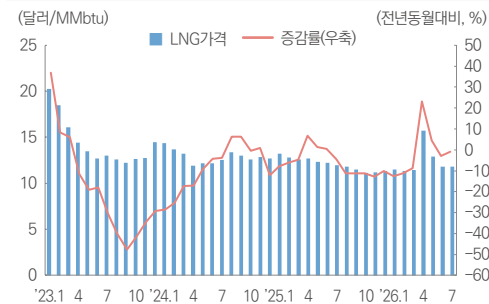
구분	2025	2026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7월	5월	6월	7월		
호주	112.9	136.9	138.5	131.9	16.8	-4.8
남아프리카	93.6	95.6	96.3	96.3	2.8	0.0
평균	103.3	116.2	117.4	114.1	10.5	-2.8

자료: 세계은행

■ 2026년 7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상승

- 천연가스 가격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LNG 공급 차질 우려가 재차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 천연가스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6.2% 상승, 전월대비 9.0% 상승
 - 천연가스가격지수(2010=100): ('26.5월) 121.2 → (6월) 118.3 → (7월) 128.9
 - 천연가스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6.5월) 19.3 → (6월) 14.1 → (7월) 26.2
- 액화천연가스 가격은 MMBtu당 11.8달러(일본시장 기준)로 전년동월대비 0.9% 하락, 전월대비 0.1% 상승
 - 액화천연가스(달러/MMBtu): ('26.5월) 12.88 → (6월) 11.79 → (7월) 11.80
 - 액화천연가스 가격(전년동월대비, %): ('26.5월) 4.55 → (6월) -3.12 → (7월) -0.92

| 그림 3 | LNG 가격 추이



주: 일본시장 기준

자료: 세계은행

| 표 3 | LNG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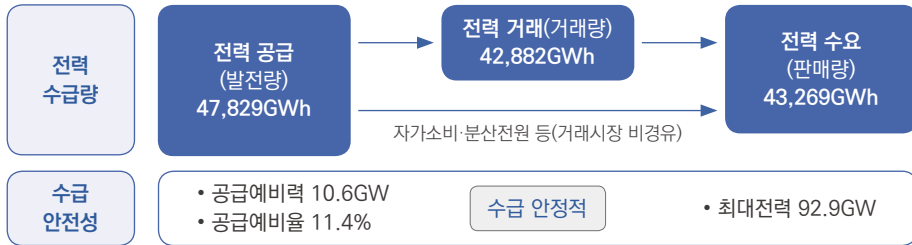
(단위: 달러/MMBtu, %)

구분	2025	2026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7월	5월	6월	7월		
미국 (Henry Hub)	3.2	2.9	3.2	2.9	-9.4	-8.3
유럽 (TTF)	11.6	16.2	15.2	18.1	55.4	19.1
일본 (JKM)	11.9	12.9	11.8	11.8	-0.9	0.1

자료: 세계은행

2 전력¹³⁾

| 그림 4 | 전력 수급 및 시장 거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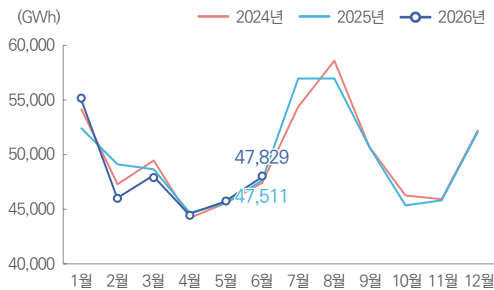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6월 전력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발전량」과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거래량」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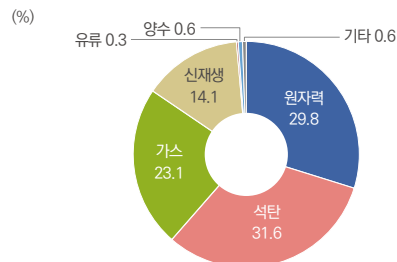
- 발전량은 47,829GWh로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기저발전 비중은 61.4%를 차지
 - 발전량(GWh): ('26.4월) 44,378 → (5월) 45,546 → (6월) 47,829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6.4월) -0.4 → (5월) 0.3 → (6월) 0.7
 - 1~6월 누적 발전량은 286,819GWh로 전년(287,534GWh) 수준을 소폭 하회
 -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전원믹스)은 석탄 31.6%, 원자력 29.8%, 가스 23.1%, 신재생 14.1% 순이며, 기저발전¹⁴⁾ 비중은 61.4%로 나타남

| 그림 5 | 월별 발전량(전력공급)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 그림 6 |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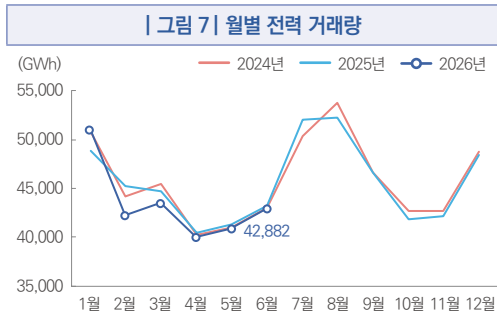
13) 전력 동향에서 사용되는 주요 단위는 다음과 같음

- 전력(Power, 단위: W, kW, MW, GW)은 일정 시점에서의 전기 사용 세기(출력)를 의미하며, 주로 발전설비의 설치용량이나 순간 최대수요를 나타낼 때 사용됨
- 전력량(Energy, 단위: Wh, kWh, MWh, GWh)은 전력을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한 누적량으로, 국가 간 전력의 생산·거래·판매 등 에너지 총량을 집계하는 데 활용됨
- 개념적으로 전력은 물의 흐름의 세기(수압)에, 전력량은 일정 시간 동안 축적된 물의 양에 각각 비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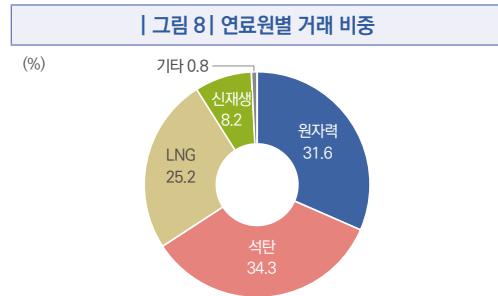
14) 기저발전은 전력수요의 기초부하를 담당하기 위해 24시간 안정적으로 연속 운전되는 발전원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원자력 및 석탄발전이 이에 해당함

- 전력거래량¹⁵⁾은 42,882GWh로 평균기온 하락¹⁶⁾에 따른 냉방용 전력수요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0.8% 감소

- 전력거래량(GWh): ('26.4월) 39,940 → (5월) 40,794 → (6월) 42,882
-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26.4월) -1.1 → (5월) -1.2 → (6월) -0.8
- 1~6월 누적 거래량은 260,374GWh로 전년(263,613GWh) 수준을 소폭 하회
- 연료원별 비중은 석탄 34.3%, 원자력 31.6%, LNG 25.2%, 신재생 8.2%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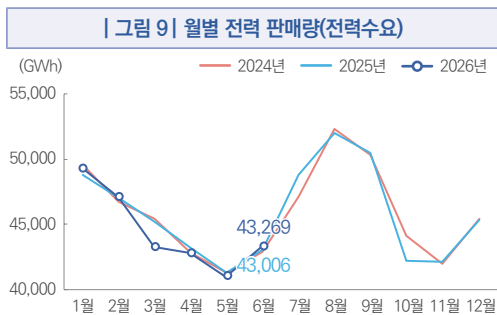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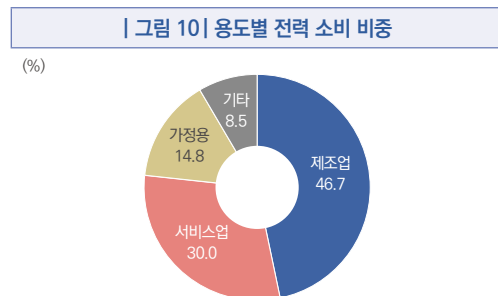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전력판매량은 43,269GWh로 전년동월대비 0.6% 증가

- 전력판매량(GWh): ('26.4월) 42,728 → (5월) 40,931 → (6월) 43,269
-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26.4월) -0.9 → (5월) -0.7 → (6월) 0.6
- 1~6월 누적 전력판매량은 266,671GWh로 전년동기간대비 0.6% 감소
- 용도별 전력소비 비중은 제조업 46.7%, 서비스업 30.0%, 가정용 14.8% 순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주: 기타는 공공용, 농수산업, 광업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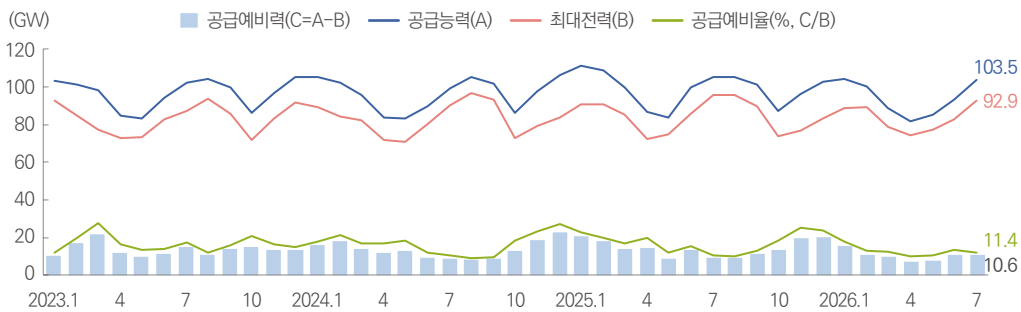
15) 전력거래량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된 전력거래량(PPA거래량 불포함)을 의미하며, 총 발전량에서 발전소의 소내소비량과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소비량 등은 제외한 통계임

16) 평균기온(△0.7℃): ('25.6) 22.9℃ → ('26.6) 22.2℃

■ 7월 전력 수급 안정성은 「최대전력」, 「공급예비력」, 「공급예비율」 등 주요 지표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최대전력은 92.9GW로 전년동월대비 2.9% 감소
 - 최대전력(GW): ('26.5월) 76.6 → (6월) 82.2 → (7월) 92.9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6.5월) 3.2 → (6월) -4.0 → (7월) -2.9
- 공급예비력은 10.6GW, 전력공급예비율은 11.4%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¹⁷⁾
 - 공급예비력(GW): ('26.5월) 7.7 → (6월) 10.8 → (7월) 10.6
 - 공급예비율(%): ('26.5월) 10.0 → (6월) 13.1 → (7월)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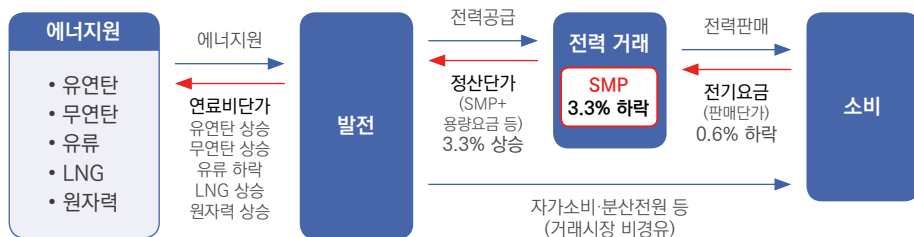
| 그림 11 | 전력 수급 안정성 지표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7월 「연료비단가」는 유류를 제외한 모든 에너지원에서 전년동월대비 상승했으며, 6월 「전력도매가격(SMP)」과 「판매단가」는 하락한 반면 「정산단가」는 상승

| 그림 12 | 전력시장 주요 가격 지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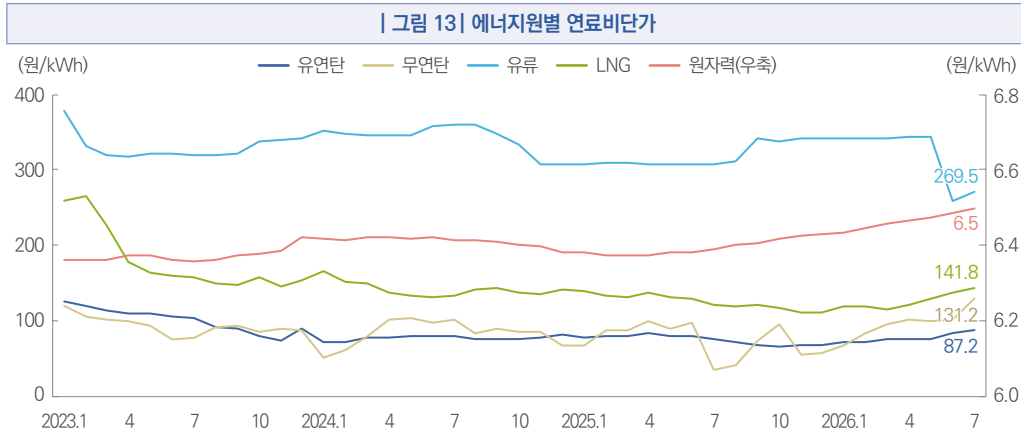
주: 가격지표 변동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7) 전력공급안정성은 공급예비력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냉난방온도 관리, 수요관리 제도 시행, 추가 발전소 가동 등 '전력수급 비상조치'를 시행하며 그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판단

- 7월 발전사가 연료 공급사로부터 구입한 에너지원별 연료비단가는 전년동월대비 유류는 하락한 반면,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LNG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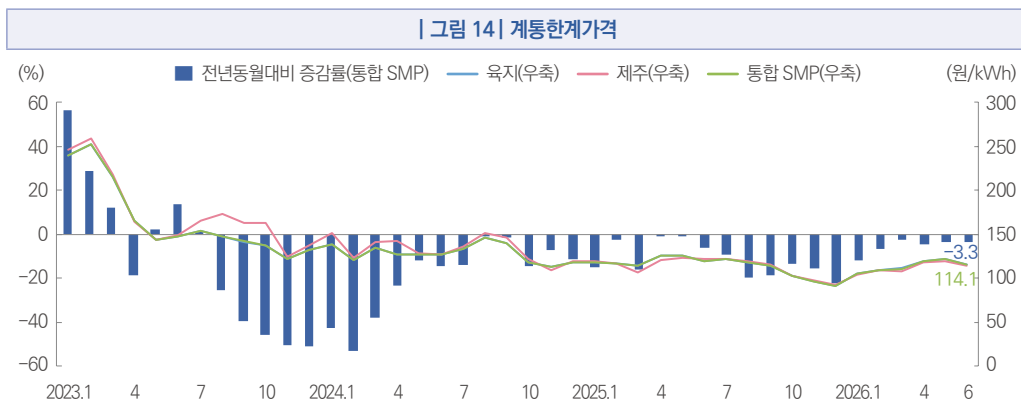
- 연료비단가(원/kWh): (원자력)6.5, (유연탄)87.2, (무연탄)131.2, (유류)269.5, (LNG)141.8
- 연료비단가(전년동월대비, %): (원자력)1.7, (유연탄)17.8, (무연탄)280.7, (유류)-12.5, (LNG)17.4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6월 전력거래소에서 결정된 시장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kWh당 114.1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3%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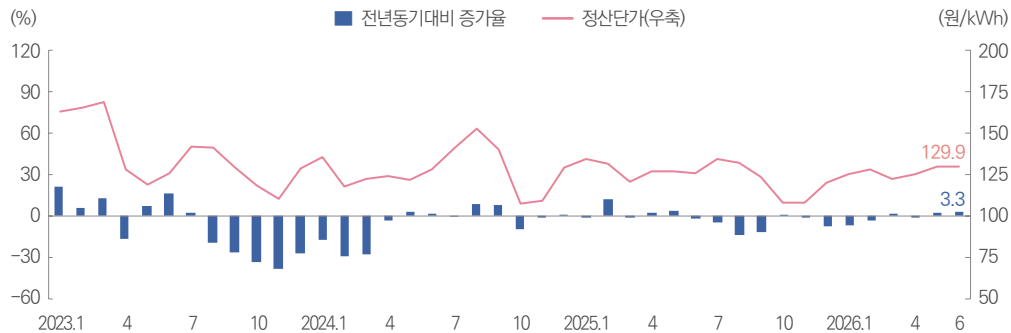
- LNG 열량단가가 전년동월 대비 7.4% 상승하였으나, LNG 발전기의 SMP 결정비율이 95.1%에서 65.0%로 30.1%p 하락하면서 SMP가 하락
- 통합 SMP(원/kWh): ('26.4월) 118.9 → (5월) 121.3 → (6월) 114.1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6.4월) -4.5 → (5월) -3.3 → (6월) -3.3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6월 전력거래소의 발전사 지급 정산단가는 kWh당 129.9원으로,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0.8% 감소하였음에도 거래금액이 3.5% 증가하면서 정산단가는 3.3% 상승
 - 정산단가(원/kWh): ('26.4월) 125.2 → (5월) 129.6 → (6월) 129.9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6.4월) -1.3 → (5월) 2.5 → (6월) 3.3

| 그림 15 | 정산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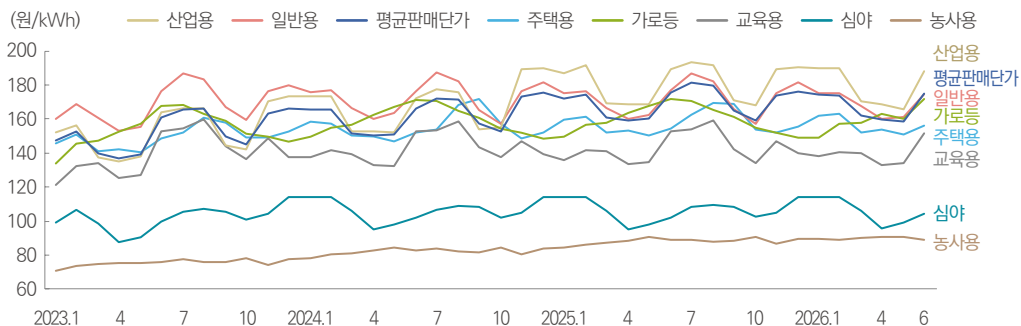


주: 정산단가 = (거래금액 - RPS의무이행비용 - 예측제도정산금) ÷ 거래량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6월 한국전력이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하고 받은 kWh당 평균 판매단가는 175.2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6% 하락
 - 판매단가(원/kWh): ('26.4월) 159.5 → (5월) 158.7 → (6월) 175.2
 - 판매단가(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6.4월) 0.1 → (5월) -1.1 → (6월) -0.6
 - 1월~6월 누적 판매단가: 169.5원/kWh (전년 동기간 대비 1.2% 상승)
 - 계약종별 kWh당 판매단가는 산업용(188.7원)은 전년 동기 대비 0.4% 하락, 일반용(174.6원)은 1.2% 하락, 주택용(155.8원)은 0.9% 상승
 - 산업용 판매단가(원/kWh): ('26.4월) 168.6 → (5월) 165.7 → (6월) 188.7
 - 일반용 판매단가(원/kWh): ('26.4월) 159.7 → (5월) 161.0 → (6월) 174.6
 - 주택용 판매단가(원/kWh): ('26.4월) 153.5 → (5월) 150.8 → (6월) 155.8

| 그림 16 | 계약종별 전력 판매단가



주: 일반용은 주택·산업용 등 타 종별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및 업무용 오피스텔에 해당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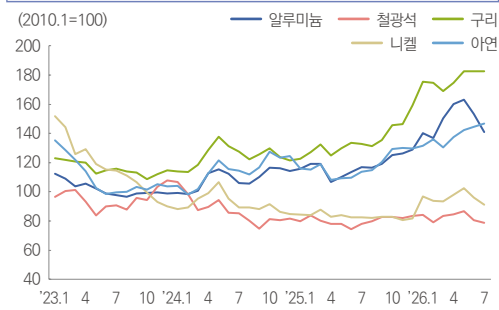
3

비철금속

■ 2026년 7월 「비철금속」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월대비 하락

- 7월 비철금속 가격은 주요 광산의 생산 차질과 원료 공급 부족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7.4% 상승, 일부 품목의 공급 정상화와 수요 둔화 등으로 전월대비 2.8% 하락
 - 비철금속 가격지수(2010=100): ('26.5월) 148.8 → (6월) 144.6 → (7월) 140.5
 - 비철금속 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6.5월) 39.3 → (6월) 33.1 → (7월) 27.4
- 알루미늄 가격은 중동 공급 차질 우려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1.3% 상승
 - 알루미늄 가격(달러/톤): ('26.5월) 3,666 → (6월) 3,439 → (7월) 3,161
 - 알루미늄 가격(전년동월대비, %): ('26.5월) 49.7 → (6월) 36.1 → (7월) 21.3
- 철광석 가격은 중국 주요 항구 재고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0% 상승
 - 철광석 가격(달러/톤): ('26.5월) 109 → (6월) 101 → (7월) 98
 - 철광석 가격(전년동월대비, %): ('26.5월) 12.0 → (6월) 9.2 → (7월) 1.0
- 구리 가격은 중동발 공급 차질 우려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8.6% 상승
 - 구리 가격(달러/톤): ('26.5월) 13,543 → (6월) 13,552 → (7월) 13,543
 - 구리 가격(전년동월대비, %): ('26.5월) 42.1 → (6월) 37.8 → (7월) 38.6
- 니켈 가격은 중동발 황 공급 차질에 따른 제련 부담 확대와 인도네시아의 감산 우려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0.8% 상승
 - 니켈 가격(달러/톤): ('26.5월) 18,806 → (6월) 17,588 → (7월) 16,651
 - 니켈 가격(전년동월대비, %): ('26.5월) 22.5 → (6월) 17.2 → (7월) 10.8
- 아연 가격은 주요 광산의 생산 차질과 중국의 정광 공급 부족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0.3% 상승
 - 아연 가격(달러/톤): ('26.5월) 3,482 → (6월) 3,539 → (7월) 3,599
 - 아연 가격(전년동월대비, %): ('26.5월) 31.7 → (6월) 33.3 → (7월) 30.3

| 그림 17 | 비철금속 가격 추이



자료: 세계은행, LME

| 표 4 | 비철금속 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

구분	2025	2026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7월	5월	6월	7월		
알루미늄	2,606	3,666	3,439	3,161	21.3	-8.1
철광석	97	109	101	98	1.0	-2.6
구리	9,771	13,543	13,552	13,543	38.6	-0.1
니켈	15,034	18,806	17,588	16,651	10.8	-5.3
아연	2,763	3,482	3,539	3,599	30.3	1.7

자료: 세계은행, L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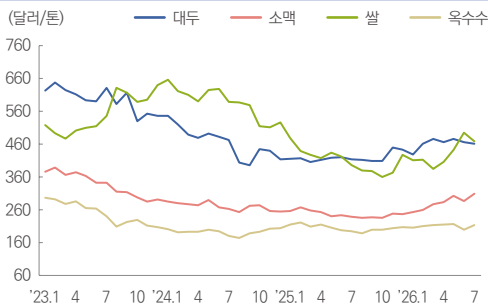
4

곡물

■ 2026년 7월 「곡물」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월대비 하락

- 7월 곡물 가격은 미국 중서부의 고온·건조에 따른 작황 우려와 흑해지역의 수출 차질 우려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8.3% 상승, 대두·쌀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0.3% 하락
 - 곡물 가격지수(2010=100): ('26.5월) 120.7 → (6월) 117.2 → (7월) 116.8
 - 곡물 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6.5월) 11.4 → (6월) 9.8 → (7월) 8.3
- 옥수수 가격은 국제유가 강세와 미국 중서부 지역의 고온·건조에 따른 작황 우려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1.1%, 전월대비 8.3% 상승
 - 옥수수 가격(달러/톤): ('26.5월) 216.2 → (6월) 197.1 → (7월) 213.4
 - 옥수수 가격(전년동월대비, %): ('26.5월) 6.0 → (6월) 0.5 → (7월) 11.1
- 대두 가격은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 등 건조한 수요 여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2.0% 상승, 주요 생산국의 생산 증가 전망 등으로 전월대비 1.1% 하락
 - 대두 가격(달러/톤): ('26.5월) 473.0 → (6월) 464.0 → (7월) 459.0
 - 대두 가격(전년동월대비, %): ('26.5월) 14.3 → (6월) 11.5 → (7월) 12.0
- 소맥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에 따른 흑해지역 수출 차질 우려로 전년동월대비 31.9%, 전월대비 8.4% 상승
 - 소맥 가격(달러/톤): ('26.5월) 303.0 → (6월) 286.0 → (7월) 310.0
 - 소맥 가격(전년동월대비, %): ('26.5월) 27.8 → (6월) 19.1 → (7월) 31.9
- 쌀 가격은 주요 생산국의 생산 감소와 소비·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9.1% 상승, 2기작 수확기를 앞둔 구매자 관망세와 바트화 약세 등으로 전월대비 5.5% 하락
 - 쌀 가격(달러/톤): ('26.5월) 440.0 → (6월) 494.0 → (7월) 467.0
 - 쌀 가격(전년동월대비, %): ('26.5월) 2.1 → (6월) 17.9 → (7월) 19.1

| 그림 18 | 곡물 가격 추이



자료: 세계은행, CME

| 표 5 | 곡물 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

구분	2025	2026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7월	5월	6월	7월		
옥수수	192	216	197	213	11.1	8.3
대두	410	473	464	459	12.0	-1.1
소맥	235	303	286	310	31.9	8.4
쌀	392	440	494	467	19.1	-5.5

자료: 세계은행, CME

IV

환경

1

배출권거래¹⁸⁾

■ 6월 「지표배출권(KAU25)」의 전월대비 평균가는 상승, 종가는 하락

- KAU25¹⁹⁾ 평균가는 톤당 22,806원으로 전월(19,368원) 대비 3,438원 상승
 - KAU25 평균가(원/톤): ('26.4월) 16,632 → (5월) 19,368 → (6월) 22,806
- KAU25 종가는 톤당 22,800원으로 전월(24,550원) 대비 1,750원 하락
 - KAU25 종가(원/톤): ('26.4월) 17,050 → (5월) 24,550 → (6월) 22,800
- KAU25의 최저가는 톤당 19,600원('26.6.17), 최고가는 28,800원('26.6.8)을 기록
- (가격 상승 요인) ①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 개시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축소 (전 계획기간 대비 약 17% 감소) 및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중 확대(2026년 15% → 2030년 50% 단계적 확대) ②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산업생산 확대 전망 ③유상할당(경매) 응찰경쟁 심화('26.5월 응찰비율 218.5%, 역대 최고)로 경매가격 상승이 현물시장 매수심리를 자극
- (가격 변동성 요인)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의 연간 배출량 제출기한(매년 8월) 을 앞두고 6~8월 정산기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적 요인이 병존

18)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은 ① 할당 배출권(KAU) ② 상쇄배출권(KCU) ③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으로 구분되며 「NABO 산업동향&이슈」에서는 주요 배출권인 할당 배출권인 KAU를 살펴봄

19) 배출권거래제에서 KAU(Korean Allowance Unit)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이며, 1KAU는 이산화탄소(CO₂) 1톤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의미. KAU 뒤에 붙는 숫자는 해당연도의 탄소배출권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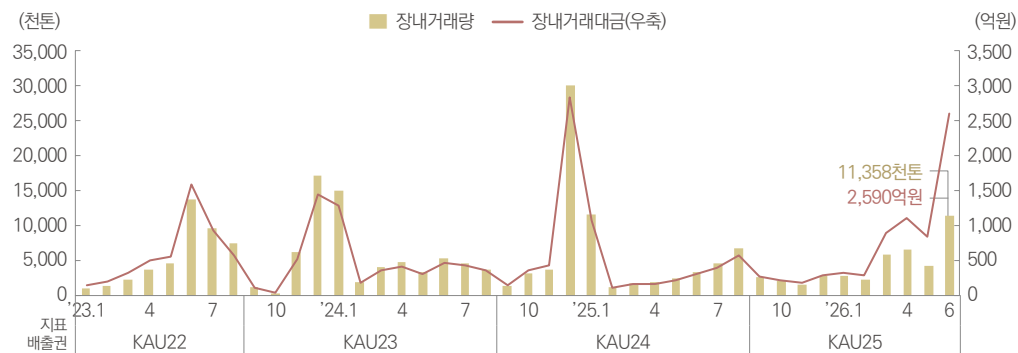
| 그림 1 | 배출권 장내가격



■ 6월 「지표배출권(KAU25)」의 전월대비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모두 증가

- KAU25의 거래량은 13,029천톤으로 전월대비 7,484천톤 증가
 - KAU25 거래량(천톤): ('26.4월) 8,728 → (5월) 5,545 → (6월) 13,029
- KAU25의 장내거래량은 11,358천톤, 유상할당(경매)량은 1,058천톤, 장외거래량은 614천톤
 - KAU25 장내거래량(천톤): ('26.4월) 6,611 → (5월) 4,345 → (6월) 11,358
- KAU25의 거래대금은 2,975억원으로 전월대비 1,898억원 증가
 - KAU25 거래대금(억원): ('26.4월) 1,451 → (5월) 1,077 → (6월) 2,975
- KAU25의 장내거래 대금은 2,590억원, 유상할당(경매) 대금은 280억원, 장외거래 대금은 105억원
 - KAU25 장내거래대금(억원): ('26.4월) 1,099 → (5월) 841 → (6월) 2,590
- 6월 거래량·거래대금 증가는 정산기 매수세 확대 및 유상할당 경매 물량 증가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
 - 정산기를 앞둔 부족분 확보 수요와 경매시장 과열이 현물시장으로 확산되며 장내거래량·거래대금이 동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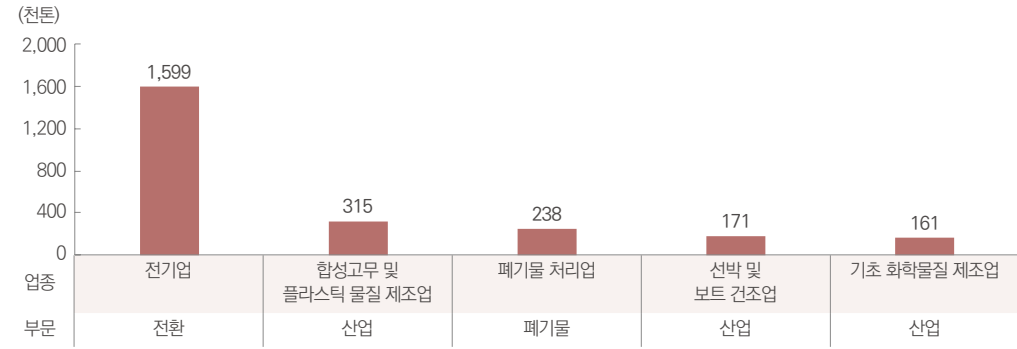
| 그림 2 | 배출권 장내 거래량 및 거래대금



■ 6월 업종별 장내거래 최대 매수업은 전기업, 최대 매도업은 1차 철강 제조업

- 매수 상위 3개 업종은 ①전기업, ②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③폐기물 처리업 순
 - 업종별 매수량(천톤): 전기업(1,599),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315), 폐기물 처리업(238)
 -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중 확대로 배출권 추가 수요로 전기업 매수 증가

| 그림 3 | 매수 상위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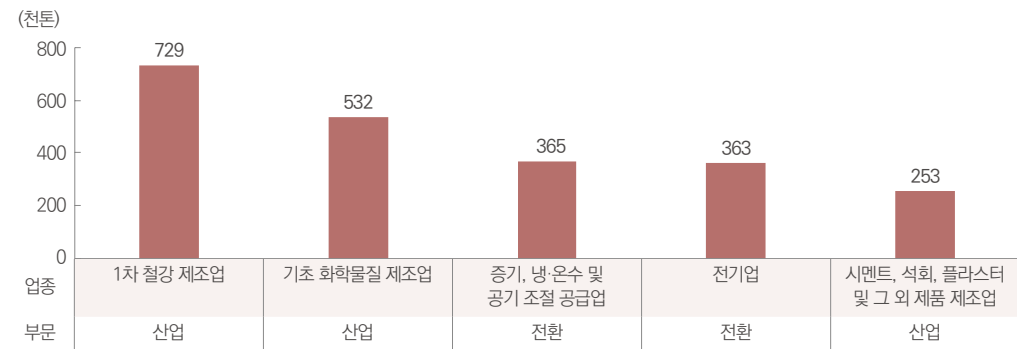
주: KAU25의 업종별 장내거래 기준

자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 매도 상위 3개 업종은 ①1차 철강 제조업, ②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③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순

- 업종별 매도량(천톤): 1차 철강 제조업(729),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532),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365)

| 그림 4 | 매도 상위업종



주: KAU24, 25의 업종별 장내거래 기준

자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2

재활용가능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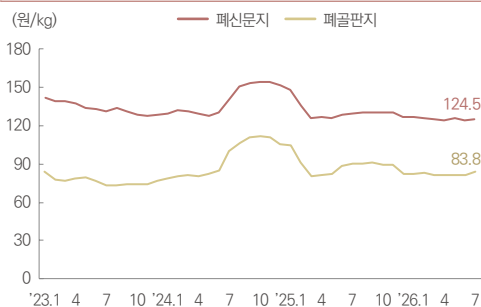
■ 7월 조사일²⁰⁾ 기준 「국내 폐지」 평균가격은 폐신문지와 폐골판지 모두 상승

- 폐신문지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0.6원 상승하여 124.5원
- 폐신문지(원/kg): ('26.5월) 125.0 → (6월) 123.9 → (7월) 124.5
- 폐골판지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2.3원 상승하여 83.8원
- 폐골판지(원/kg): ('26.5월) 81.2 → (6월) 81.5 → (7월) 83.8

■ 7월 조사일 기준 「국내 폐플라스틱」 평균가격은 PET 압축, PP(플레이크), EPS 잉고트, PP(펠렛)이 모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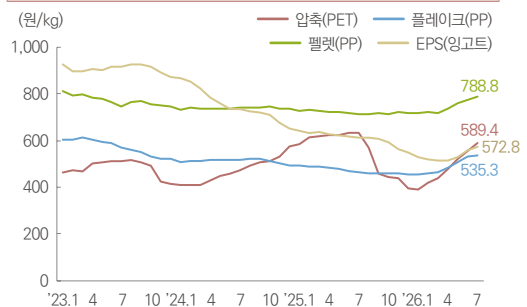
- PET²¹⁾ 압축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35.3원 상승하여 589.4원
- PET 압축(원/kg): ('26.5월) 521.9 → (6월) 554.1 → (7월) 589.4
- PP²²⁾ 플레이크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2.7원 상승하여 535.3원
- PP 플레이크(원/kg): ('26.5월) 505.4 → (6월) 532.6 → (7월) 535.3
- PP 펠렛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16.3원 상승하여 788.8원
- PP 펠렛(원/kg): ('26.5월) 761.5 → (6월) 772.5 → (7월) 788.8
- EPS²³⁾ 잉고트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17.2원 상승하여 572.8원
- EPS 잉고트(원/kg): ('26.5월) 524.4 → (6월) 555.6 → (7월) 572.8

| 그림 5 | 전국 폐지 평균 가격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 그림 6 | 전국 폐플라스틱 평균 가격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20) 한국환경공단은 매월 10일 5종 26개 품목에 대한 통계조사를 시행하여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를 발표

21)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은 무색이며 단단하고 충격에도 비교적 강한 플라스틱으로 음료수병, 생수병 등으로 활용

22) PP(Polypropylene)는 가벼우며, 내화학성과 내열성이 뛰어난 플라스틱으로 주류, 음료 상자 등으로 활용

23) EPS(Expanded Polystyrene)는 폴리스티렌 수지에 펜탄 또는 부탄 등 탄화수소가스를 주입한 후 증기로 부풀린 발포 제품으로 흔히 스티로폼(상품명)이라 부르며 단열재, 전자제품, 식품 포장 등으로 활용

■ 7월 조사일 기준 「폐유리병」 평균가격은 백색, 청록색, 갈색이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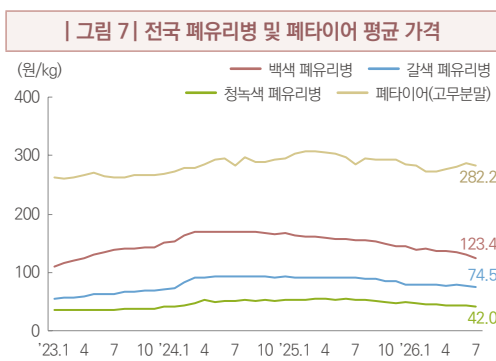
- 유리병(백색) 컬렛²⁴⁾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6.0원 하락하여 123.4원
 - 유리병(백색) 컬렛(원/kg): ('26.5월) 134.6 → (6월) 129.4 → (7월) 123.4
- 유리병(갈색) 컬렛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3.0원 하락하여 74.5원
 - 유리병(갈색) 컬렛(원/kg): ('26.5월) 79.1 → (6월) 77.5 → (7월) 74.5
- 유리병(청록색) 컬렛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1.3원 하락하여 42.0원
 - 유리병(청록색) 컬렛(원/kg): ('26.5월) 43.1 → (6월) 43.3 → (7월) 42.0

■ 7월 조사일 기준 「페타이어(고무분말)」 평균가격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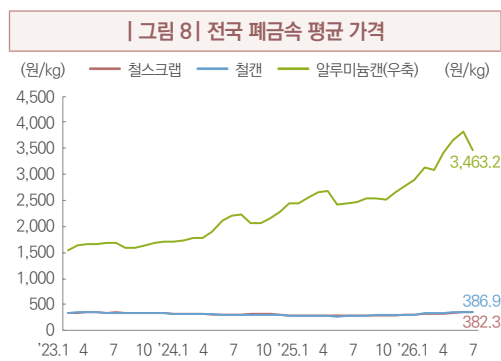
- 페타이어(고무분말)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3.9원 하락한 282.2원
 - 페타이어(고무분말, 원/kg): ('26.5월) 280.1 → (6월) 286.1 → (7월) 282.2

■ 7월 조사일 기준 「폐금속」 평균가격은 철스크랩, 철캔, 알루미늄캔이 모두 하락

- 철스크랩²⁵⁾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3.8원 하락하여 382.3원
 - 철스크랩(원/kg): ('26.5월) 361.3 → (6월) 386.1 → (7월) 382.3
- 철캔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2.5원 하락하여 386.9원
 - 철캔(원/kg): ('26.5월) 376.5 → (6월) 389.4 → (7월) 386.9
- 알루미늄캔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369.3원 하락하여 3,463.2원
 - 알루미늄캔(원/kg): ('26.5월) 3,672.7 → (6월) 3,832.5 → (7월) 3,463.2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24) 컬렛(Cullet)은 유리병을 일정 크기로 파쇄한 상태

25) 철스크랩은 사용 후 폐기된 철강 제품이나 철을 재활용 가능한 형태로 회수한 것으로 고철이라고도 함



산업 이슈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전력 인프라 대응과제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 이진희 분석관

1

검토배경

■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AI 데이터센터가 국가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

-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추론을 위한 고성능 GPU 기반 컴퓨팅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AI 데이터센터(AI Data Center) 구축이 세계적으로 증가
 - 국정기획위원회(2025.6)는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로 규정”¹⁾하고,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
-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GPU를 대규모로 집적하여 높은 전력밀도와 냉각성능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공급이 요구됨

■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라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 확보가 주요 과제로 부상

- AI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수요로 인해 해외에서도 발전설비 및 송전망 확보가 지연되면서 데이터센터 구축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전력 확보가 AI 데이터센터 확산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부상

■ 우리나라도 국가 AI 컴퓨팅센터 및 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AI 연산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전 및 전력망 확보가 중요

-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2026.6.29.)를 통해 2035년까지 총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계획을 제시

1) 국정기획위원회,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2025. 6., p. 21.

■ AI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구축계획이 실제 전력수요로 이어질 경우 발전설비와 전력망에 상당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구축계획의 구체화 정도와 실제 수요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전력수급 대응이 필요

- 특히 2026년 8월 20일 발표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재전망(안)」에서는 기업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사업 구체성이 높은 수요를 우선 반영하는 등, 장기 구축계획과 실제 전력수요 간 차이를 고려한 수요 전망 작업이 진행 중

■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AI 데이터센터 투자 및 구축계획을 살펴보고, 메가프로젝트의 잠재적 전력수요 규모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수요 재전망(안)의 AI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 및 반영방식을 비교하여, 실제 수요 발생에 대응한 발전설비 및 전력망 확보 등 전력수급 대응과제를 검토



자료: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작

2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AI 연산수요 증가와 AI 반도체·서버의 고성능화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빠르게 확대

- Microsoft, Amazon, Google, Meta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NVIDIA, AMD 등의 AI 반도체 고성능화와 서버의 고집적화로 AI 데이터센터 구축 확대를 촉진

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특성

■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GPU의 고부하 운영과 높은 전력밀도 등으로 일반 데이터센터²⁾보다 전력수요가 크고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중요

- (고부하 운영) AI 데이터센터는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위해 고성능 GPU를 장시간 운영하므로 높은 설비이용률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요구
- (전력밀도 상승) GPU 서버의 고집적화에 따라 랙(rack)당 전력밀도³⁾가 증가하고 있으며, 랙당 전력밀도는 2026년 16.5kW에서 2040년 51.4kW, 2050년 70kW까지 증가⁴⁾할 것으로 전망됨
- (냉각수요 확대) 고밀도 GPU 서버의 증가로 발열량이 증가하면서 냉각을 위한 전력수요도 확대⁵⁾

■ AI 데이터센터의 고부하·고밀도 운영 특성으로 인해 대규모 AI 클러스터 구축에는 수전 용량 확대와 송·변전 설비 등 전력 인프라 확보가 중요

| 그림 1 |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증가 요인



자료: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작

- 2) 일반 데이터센터가 주로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등 IT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AI 데이터센터는 AI 학습·추론을 위한 GPU 등 고성능 AI 가속기를 대규모로 집적한 데이터센터를 의미
- 3) 랙(rack)은 데이터센터에서 서버·네트워크 장비 등을 수직으로 장착·운영하기 위한 표준화된 장비용 캐비닛을 의미하며, 랙당 전력밀도는 하나의 랙에 장착된 IT 장비가 소비하는 전력 규모를 의미
- 4)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 전망 공개토론회」, 2026.4.22.
- 5) 데이터센터의 냉각 전력 비중은 냉각방식과 시설 효율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체 전력소비의 약 40% 수준으로 추정됨. McKinsey & Company, "Investing in the rising data center economy," 2023.4.1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Data Centers and Their Energy Consumpt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 R48646, 2026.1.23.

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확산 규모와 전력소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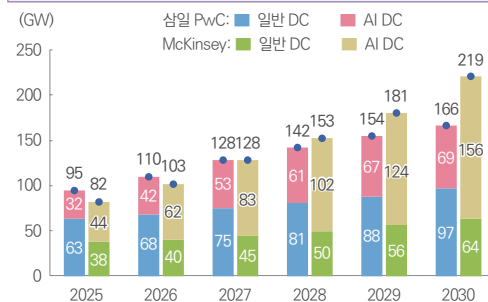
■ AI 연산수요 증가에 따라 주요 기관들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설비용량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⁶⁾하고 있으며, AI 데이터센터가 전체 데이터센터 설비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삼일PwC)⁷⁾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설비용량은 2025년 32GW에서 2030년 69GW로 2.2배 증가하고, 전체 데이터센터 설비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7%에서 41.6%로 확대될 전망
- (McKinsey)⁸⁾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설비용량은 2025년 44GW에서 2030년 156GW로 3.5배 증가하고, 전체 데이터센터 설비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7%에서 71.2%로 확대될 전망

■ (전력수요)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글로벌 전력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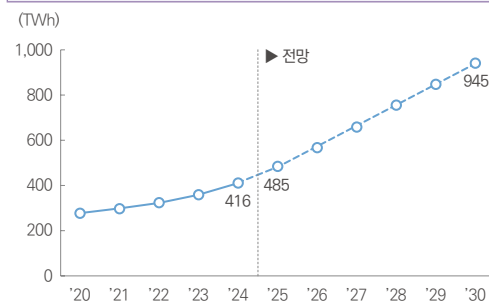
- IEA(2025)⁹⁾는 생성형 AI 확산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라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2024년 약 416TWh¹⁰⁾에서 2030년 약 945TWh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 비중은 2024년 세계 전력소비의 약 1.5%에서 2030년 약 3%로 확대되며, 2024~2030년 연평균 약 15% 증가하여 다른 산업 부문의 전력수요 증가율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

| 그림 2 | 글로벌 데이터센터 설비용량 수요 전망



자료: McKinsey & Company, The Cost of Compute Power: A \$7 Trillion Race to Scale Data Centers, 2025.4.28.; 삼일PwC, 「한국 AI 데이터센터 산업의 현재와 투자방향: AI 인프라 Value Chain 관점의 구조적 투자 기회」, 2026.3.

| 그림 3 |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소비 전망



자료: IEA, Energy and AI, "Global Data Centre Electricity Consumption by Sensitivity Case (2020-2035)", 2025.

6) 기관별 전망치는 AI 데이터센터의 정의 및 범위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AI 연산수요 증가 및 AI 활용 확대 속도, AI 반도체 서버의 성능 및 효율 개선 등에 대한 가정과 데이터센터 설비용량의 산정 방식 차이 등에 따라 상이함

7) 삼일PwC, 「한국 AI 데이터센터 산업의 현재와 투자방향: AI 인프라 Value Chain 관점의 구조적 투자 기회」, 2026.3.

8) McKinsey & Company, "The Cost of Compute Power: A \$7 Trillion Race to Scale Data Centers", 2025.4.28.

9) IEA, "Energy and AI", Global Data Centre Electricity Consumption by Sensitivity Case (2020-2035), 2025.

10) TWh(테라와트시)는 전력의 사용량을 나타내는 에너지 단위로, 1TWh=1,000GWh=10억kWh임

[BOX 1] 데이터센터 전력용량과 전력사용량의 개념 및 관계

■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특정 시점의 전력 규모를 나타내는 GW와 일정 기간 동안 소비한 전력량을 나타내는 GWh 또는 TWh 등 서로 다른 지표·단위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각각 활용 목적이 다름

- GW(전력용량)는 데이터센터가 전력계통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확보한 수전용량이나 특정 시점에 실제로 소비하는 최대전력수요 등을 나타내는 단위로, 계통영향평가, 계통연계 및 송·변전망 등 전력 인프라 계획에 활용
 - 수전용량은 데이터센터가 전력계통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확보한 전력 용량을 의미
 - 최대전력수요는 일정 기간 중 특정 시점에 나타난 가장 높은 전력수요를 의미하며, 전력 인프라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공급능력을 갖추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음
- GWh(전력사용량)는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센터가 실제 소비하는 전력량을 의미하며, 향후 전력수요 전망, 발전·전력공급 계획,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지표(GW·GWh)의 개념 및 활용 비교

구분	GW(전력용량)	GWh(전력사용량)
의미	데이터센터가 계통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확보한 수전용량 또는 특정 시점의 최대전력수요	일정 기간(통상 1년) 동안 데이터센터가 실제로 소비하는 총 전력량
단위의 성격	전력의 크기·용량	전력의 누적 사용량
비유	- 수도관의 굵기 - 도로의 차선 수	1년 동안 흘러간 물의 총량 - 도로를 지나간 총 차량 수
주요 활용	계통영향평가, 계통연계, 변전소·송전선 등 전력 인프라 계획	전력수요 전망, 발전·전력공급 계획, 전력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관계	전력사용량 = 전력용량 × 시간 × 이용률 (예) 연간 전력사용량(GWh) = 수전용량(GW) × 8,760시간 × 연평균 용량이용률 ※ 1TWh = 1,000GWh	

데이터센터 전력용량(GW)과 전력사용량(GWh·TWh)의 관계



자료: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작

3

국내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정부 지원정책

■ 국내에서도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산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되면서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도 전력·부지·인허가 및 AI 연산자원 확보 등을 지원

-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GPU 등 연산자원의 집적이 필요한 만큼 데이터센터 구축 자체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과 관련 인프라 확보가 사업 추진의 주요 요건으로 작용
- 하나증권(2026.7.)¹¹⁾은 SK·GS·네이버 외 기업의 구축계획을 포함하여 2030년 국내 AI 데이터센터 규모를 약 12.1GW로 추정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의 구체적인 구축 일정과 규모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본 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SK·GS·네이버의 구축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봄

■ SK, GS, 네이버는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35년까지 18.4GW 규모를 목표로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 정부는 2026년 6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피지컬 AI와 함께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29년까지 8.4GW, 2035년까지 총 18.4GW 규모(수전용량)까지 확대할 계획

| 표 1 | 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 기업별 구축 계획

기업	규모		주요 입지 및 계획	예상 투자규모
	1단계(~'29)	2단계(~'35)		
SK	5GW	10GW	• 울산을 시작으로 영남권 2GW 이상, 전국 거점(중부권·대경권·호남권·강원 등)에 분산 구축 • 2029년 1단계 5GW 순차 오픈 후 2035년 총 15GW 달성 목표	• 영남권(2GW)에 140조 투자 계획 • 15GW 구축을 위해 GPU 30만장, 총 사업비는 350조원 이상 투입 전망
GS	1.2GW + 1.2GW	-	• 동해시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내 약 7만 평 부지에 2028년까지 1.2GW 규모로 구축 • 2029년까지 1.2GW를 확장해 총 2.4GW급 조성	• 시설투자 30조원 • GPU 등 포함시 최대 120조원
네이버	1GW	-	• 세종에 AI팩토리 구축 • 기존 세종 인프라 확장에 더해 추가 입지 확보를 통한 초대형 풀스택 AI 플랫폼 구축	-
계	8.4GW	10GW	-	-

자료: 하나증권, 「데이터센터(Data Center): Overweight」, Industry In-depth, 2026.7.16.; SK·GS·네이버 각 기업 발표자료 및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1) 하나증권, 「데이터센터(Data Center): Overweight」, Industry In-depth, 2026.7.16.

- (SK) 영남권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총 15.0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 2029년까지 울산 1GW급 AI 클러스터를 포함한 5.0GW 규모를 1단계로 구축하고, 이후 단계적 확장을 통해 2035년 총 15.0GW 규모로 확대할 계획
 - 수익모델은 크게 AI 특화 코로케이션(Co-location) 사업¹²⁾과 AI 컴퓨팅 클라우드 사업¹³⁾의 두 축으로 구성¹⁴⁾
- (GS) 강원도 동해시 북평 제2산업단지에 2029년까지 총 2.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캠퍼스 구축 추진
 - GS E&R의 자회사인 GS동해전력이 조성한 북평 제2산업단지에 단일 단지 기준 아시아 최대 수준의 AI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
- (네이버) 세종 AI 팩토리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총 1.0GW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추진
 - 세종 AI 팩토리 확장과 추가 데이터센터 확보를 통해 초대형 풀스택 AI 플랫폼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¹⁵⁾
 - 2026년 6월 발표한 엔비디아와의 AI 팩토리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GPU 등 AI 연산 인프라를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를 확대할 계획¹⁶⁾

■ 정부는 민간기업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AI 연산 인프라 확보 및 AI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

- 민간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전력·부지·인허가 등 사업 추진 기반 지원¹⁷⁾
 -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45kV 변전소 정보 공개, 비수도권 계통영향 평가 신속 처리 등 전력·부지·인허가를 지원하고,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송·변전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등 계통연계를 단계적으로 지원
 - 과기정통부는 2026년 7월 범부처 종합 지원 전담반(TF)을 구성하여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 환경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부지·전력·금융 등을 포함한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할 계획

12) 코로케이션 사업은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수요자에게 AI 인프라를 제공하는 모델

13) AI 컴퓨팅 클라우드 사업은 GPU 등 AI 컴퓨팅 자원을 직접 제공하는 모델

14) SK텔레콤 뉴스룸,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6.6.29.

15) • 각(閣) 세종을 거점으로 '27년 상반기 55MW → '27년 내 100MW → '28년 200MW → 장기목표 1GW(국내외 인프라 합산) 순으로 단계적 확장 계획
• 1GW는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네이버가 제시한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계획 규모(8.4GW 중 1GW)이자, 엔비디아와의 글로벌 파트너십상 목표 규모이기도 함

16) 네이버 보도자료, 「네이버클라우드, 엔비디아 손잡고 “글로벌 AI 팩토리 도약” 선언… 인프라·모델·서비스 전방위 동맹」, 2026.6.2.; 네이버 보도자료, 「네이버-엔비디아, 기가와트(GW)급 초대형 AI 팩토리 구축 맞손…아시아 중동 유럽 잇는 AI 인프라 동맹」, 2026.6.8.

17) 산업통상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2026.6.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초대형 사업(메가프로젝트)을 뒷받침할 범부처 종합 지원 전담반(TF) 본격 가동」, 2026.7.14.

•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공공·민간 공동의 AI 연산 인프라 확보¹⁸⁾

- 민간 컨소시엄과 정책금융기관의 공동 출자를 통해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2028년까지 GPU 1.5만장, 2030년까지 5만장 이상 확보를 목표로 추진
- 삼성SDS 주도의 컨소시엄(네이버클라우드·KT·카카오 등)이 참여하며, 전남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를 입지로 총사업비 약 2조 5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 AI 분야 재정 확대: AI 인프라 및 산업 생태계 지원¹⁹⁾

- 정부는 2026년 AI 관련 예산을 9.9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확대하고, 41개 부처의 741개 사업을 통해 AI 인프라 및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
- 특히 AI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신규사업을 신설하고, 연산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사업에 2.1조원을 편성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민간 참여자로 삼성SDS 연합체(컨소시엄) 최종 확정」, 2026.5.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AI고속도로 핵심 인프라,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에 첫 삽」, 2026.8.3.

19) 국회예산정책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예산 현황과 향후 과제」, 나포커스 제132호, 2026.1.22.;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 예산 사업 통합 설명자료」, 2026.3.4.

4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국내 전력수요 분석

가. AI 데이터센터 구축계획에 따른 전력수요 규모

■ 2035년 AI 데이터센터 구축계획 18.4GW(수전용량)는 국내 전력수요 측면에서 상당한 규모이나, 기업이 제시한 장기적인 구축목표라는 점에서 실제 전력수요와는 구분할 필요

- 메가프로젝트의 AI 데이터센터 구축계획은 2035년 18.4GW로, 2025년 국내 최대전력 100.9GW의 18.2%에 해당
 - 반도체 팹 등 주요 메가프로젝트까지 포함하면 신규 전력설비 수요는 24.7GW로, 2025년 최대전력의 24.5%에 해당
- 특히 18.4GW는 APR1400급 대형원전 약 13기에 해당하는 설비용량으로, 국내 원전²⁰⁾ 총 설비용량(26.05GW)의 약 71%에 해당하는 규모임
 - 원전의 설비이용률 등을 고려할 경우 동일한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설비 규모는 이보다 커질 수 있음
- 또한 18.4GW는 국민평형(전용면적 84㎡)²¹⁾ 기준 약 438만 가구의 계약전력 규모로, 수도권 가구 수의 약 40%에 해당
- 다만 18.4GW는 기업이 제시한 장기적인 데이터센터 공급·구축목표를 합산한 규모로, 이를 실제 발생이 확정된 전력수요로 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기업의 장기 구축목표에는 현재 확보된 수요뿐만 아니라 향후 AI 서비스 확대, 신규 고객 확보 등을 전제로 한 상방수요와 장기적인 사업기회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

■ 국내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에서도 큰 규모

- 국내 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 1단계 8.4GW는 2030년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설비용량(2030년 약 156GW, McKinsey, 2025)의 약 5.4%에 해당하는 규모

20) 2026.8.14.일 현재 국내 원전은 총 26기가 운영 중이며, 이 중 20기가 운전 중임.

21) 세대별 표준 계약전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전용면적 84㎡ 적용 시 약 4.2kW, 이를 기준으로 18.4GW를 환산하면 약 438만 가구이며, 수도권 가구 수는 서울·경기·인천의 가구 수(약 1,100만 가구, 2025년 기준)를 합산하여 산정

| 그림 4 | 다양한 기준으로 본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규모



자료: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작

나. 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의 잠재 전력사용량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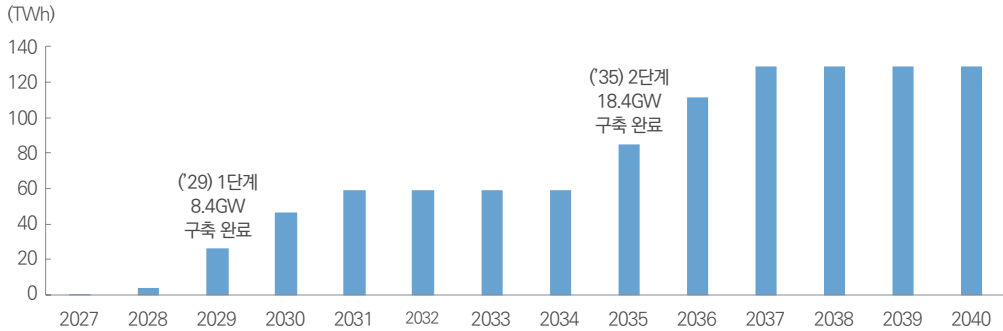
■ 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의 구축계획과 단계적 설비용률 가정을 적용하여 전력 사용량을 추정한 결과, 연간 전력사용량은 1단계 사업이 안정화되는 2031년 약 58.9TWh, SK의 2단계 사업이 반영되는 2037년 이후 약 128.9TWh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BOX 2 참고)

- AI 데이터센터는 구축 직후부터 최대 용량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GPU 설치, 고객 확보 및 AI 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설비용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특성이 있어, 전력사용량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증설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 다만, 128.9TWh는 18.4GW의 계획 규모가 모두 구축되고 가정한 설비용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잠재적 전력사용량으로, 실제 전력사용량은 사업 추진 여부와 구축·가동 일정, 최종 수요처 확보 여부, 수전용량 및 설비용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037년 이후 연간 전력사용량 128.9TWh는 2025년 우리나라 총 전력소비량 (549.4TWh)의 약 23.5%에 해당하는 규모로, 메가프로젝트가 계획대로 구축·운영될 경우 국가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및 수요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수요 구체화 정도와 발생 시점에 맞춰 발전설비와 송·변전망 등 전력 인프라를 적기에 확보할 필요

| 그림 5 | 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 전력사용량(TWh) 추정



주: 본 추정치는 수전용량 및 단계적 용량이용률 가정에 기반한 단순 추계로, 실제 전력사용량은 구축 일정 증설 속도·실사용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산업통상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2026.6.29.; SK·GS·네이버 각 사 홈페이지·언론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BOX 2] AI 데이터센터 잠재 전력사용량 추정 방법

■ 수전용량(GW)을 기준으로 각 프로젝트의 상업운전 시점을 반영하고, 초기 가동 안정화 기간을 고려하여 연평균 용량 이용률²²⁾ 단계적으로 적용

- 1~3년차에 걸쳐 이용률이 단계적으로 상승한다는 가정(30% → 60% → 80%)²³⁾

■ 연간 전력사용량은 다음 식으로 산정

$$\text{연간 전력사용량(TWh)} = \text{수전용량(GW)} \times 8,760(\text{시간}) \times \text{연평균용량이용률} \div 1,000$$

- (예시) 5GW AI 데이터센터가 3년차 이후(연평균 용량 이용률 80%) 운영되는 경우 $5\text{GW} \times 8,760 \times 0.8 \div 1,000 = 35.0\text{TWh/년}$

22) 용량 이용률은 연간 평균 전력사용량을 수전용량으로 나눈 값이며, 순간 최대부하 대비 평균부하 비율을 뜻하는 부하율(load factor)과는 다른 개념임

23) 전력연구원(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2026)는 가동 첫해 20%에서 매년 20%p씩 상승해 5년차에 완전 가동(100%)에 도달하는 선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는 엔터프라이즈·코로케이션이 혼재된 미국 데이터센터 전체 평균에 기반한 것으로, 특정 대기업이 단독 수요기업으로 참여해 계약이 집중되는 국내 하이퍼스케일 AI 클러스터(SK·GS·네이버 등)와는 표본 성격이 상이할. 실제로 해외 유틸리티들도 표준화된 단일 곡선 대신 계약 마일스톤 등을 토대로 프로젝트별 램프업 속도를 개별 산정하고 있어, 계약 구조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국내 메가프로젝트에 EPRI보다 빠른 상승 속도를 적용
 EPRI, "Annual and Peak Electricity Use: History and Future Projections," Powering Intelligence 2026, 2026.2.24.

■ 본 추정치 해석 시 유의사항

- (용량 이용률 가정) 예시적 가정이며, 실제 용량 이용률은 프로젝트 목적(학습용/추론용), 고객사 계약 구조, GPU 등 IT 장비 조달·구축 속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3년차 이후 80% 역시 고정값이 아니라 수요 변동에 따라 상회하거나 하회할 수 있음²⁴⁾
- (수전용량과 실제 사용량의 차이) 수전용량은 한전 등 계통사업자와 계약된 최대 수전 가능 전력으로, 실제 부하 내 IT 부하나 전력사용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특히 수전용량은 통상 여유율(contingency margin)을 감안해 실제 필요량보다 높게 계약되는 경우가 많아, 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전력사용량이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
- (사업운전 시점 정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단계적 준공(phased completion)이 일반적이므로, “사업운전 시점”을 전체 수전용량 확보 완료 기준으로 볼지 최초 단계 수전 개시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추정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수전용량 자체의 불확실성) 계획·인허가 단계의 수전용량은 한전 계통 접속 검토 결과, 변전소 증설 일정, 사업자의 계약 변경 등에 따라 실제 준공 시점에 달라질 수 있음
- (PUE²⁵⁾ 반영 기준) 수전용량은 IT 부하뿐 아니라 냉각·전력변환 손실 등을 포함한 총 시설 전력 개념이므로, 본 산식으로 산출된 연간 전력사용량 역시 총 시설 전력 기준 수치임. 이를 IT 부하(서버) 기준 전력사용량과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타 기관·문헌의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추정치와 비교 시 산정 기준(총 시설 전력 vs IT 부하)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 필요
- (기준 시점) 본 추정은 [기준 시점] 현재 파악된 프로젝트 정보를 토대로 하며, 프로젝트 취소·지연·용량 변경이 빈번한 분야 특성상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함

24) 최종 정상화 수준(80%)은 EPRI가 실측한 명판용량 대비 피크 이용률 범위(62~80%)의 상단

25) PUE(Power Usage Effectiveness)는 데이터센터의 총 시설 전력량을 IT 장비 전력량으로 나눈 값으로, 냉각·전력변환 등에 소요되는 전력을 포함하여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

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AI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 비교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필요한 발전설비 및 전력망 확충계획을 제시하는 국가 중장기 계획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은 2025년 3월 확정되었으며, 현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2차 전기본')이 수립 중
 - 전기본은 2년 주기로 갱신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매 차수의 전망치는 수립 시점까지 구체화된 정보를 반영한 결과이며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갱신·보완되는 성격을 가짐
- 12차 전기본은 2026년 4월 제3차 대국민 정책토론회에서 수요전망 잠정안 발표 이후, 8월 20일 제5차 대국민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투자계획 등을 추가 반영한 수요 재전망(안)을 발표

■ 11차 전기본의 데이터센터 수요전망은 수립 당시 파악된 구축계획을 반영하여 2038년까지의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를 전망²⁶⁾

- 11차 전기본은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량이 2030년 18.0TWh에서 2038년 30.0TWh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메가프로젝트의 AI 데이터센터 구축계획 18.4GW가 모두 실현될 경우 잠재적 전력사용량은 2030년 46.6TWh, 2038년 128.9TWh로 추정되어 11차 전기본의 데이터센터 수요전망을 크게 상회
 - 이는 메가프로젝트가 기업의 장기 구축계획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 잠재수요인 반면, 11차 전기본은 국가 전체의 전력수급을 고려하여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요를 중심으로 전망한다는 반영 시점·산정 성격의 차이(계획단계의 잠재수요 vs. 구체화된 유효수요)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격차 자체를 전기본의 과소전망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이후 전기본에서 메가프로젝트 수요가 어떻게 구체화·반영되어 가는지 살펴볼 필요

■ 현재 수립중인 12차 전기본은 4월 수요전망 잠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구체화된 반도체·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 등을 추가 반영하여 8월 20일 수요 재전망(안)에서 데이터센터 수요를 대폭 상향 조정

- (4월 잠정안) 2040년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량 42.1TWh, 최대전력 6.2GW로 전망
- (8월 재전망(안)) 2040년 전력소비량 100.6TWh(4월 대비 약 2.4배), 최대전력 14.2GW(약 2.3배)로 상향

26) 2026년 6월 발표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AI 데이터센터(18.4GW) 계획은 계획 수립 이후 확정된 신규 수요로 반영되지 않음

■ 12차 전기본 수요 재전망(안)은 기업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 전체를 확정수요로 일괄 반영하기보다는, 사업 구체성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

- 기업들이 제시한 2040년까지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은 계약전력 기준 약 20.8GW 규모이며, 이 중 사업 구체성 및 추진상황이 높은 1단계 10.8GW를 이번 수요 재전망(안)에 우선 반영
 - 나머지 약 10GW(2단계)는 향후 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차기 전기본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
 - 2040년 데이터센터 최대전력은 14.2GW로 전망되며, 이 중 기존 데이터센터 성장 전망과의 중복분 등을 제외한 추가수요는 11.9GW로 산정

[표 2]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재전망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변화

	11차	12차 4월 수요잠정안	12차 8월 재전망
전망연도	2038	2040	2040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량	30.0TWh	42.1TWh(26.5TWh)	100.6TWh(84.9TWh)
데이터센터 최대전력	6.2GW(4.4GW)	6.2GW(4.0GW)	14.2GW(11.9GW)
AI DC 투자계획 반영	당시 구축계획 등	구조적 증가	20.8GW 중 10.8GW 우선 반영

주: () 안은 기존 성장추세 등을 반영한 모형수요에 추가수요를 합산한 전체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중 추가수요를 의미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 전망 공개토론회」, 2026.4.22.; 기후에너지환경부·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 「전력 수요 재전망(5차) 대국민 정책토론회」, 2026.8.20.

■ 메가프로젝트의 구축목표(18.4GW)와 전기본의 수요전망은 산정 목적·기준시점·반영 방식이 상이하여, 단순 규모 비교보다는 실제 수요가 구체화되는 과정과 이를 전기본에 반영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

- 메가프로젝트 18.4GW는 기업이 제시한 2035년까지의 장기 구축목표로, 사업 추진·인허가·수요처 확보 등에 따라 실제 구축 규모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계획단계의 수치
- 반면 전기본의 수요전망은 기업 투자계획 중 사업 구체성이 높은 물량을 우선 반영하고 불확실성이 큰 물량은 유보하는 방식으로, 수요의 확실성과 발생시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구성
- 따라서 두 수치 간의 차이는 전기본의 과소·과다 전망 여부의 근거로 보기보다는, 장기 구축계획이 실제 유효수요로 구체화되는 정도와 이를 전기본에 반영하는 절차상의 특성으로 이해할 필요
- 향후에도 AI 데이터센터 구축계획의 구체화 및 사업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전기본 수요전망에 순차적으로 반영해 나갈 필요

5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수급 대응과제

■ AI 데이터센터의 실제 수요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력수요를 순차적으로 반영하고, 수요 발생에 맞춰 발전설비와 전력망을 적기에 확보할 필요

- AI 데이터센터 기업의 장기 구축목표에는 확정된 수요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 확대를 전제로 한 기대·잠재수요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확정수요로 간주하여 전력 인프라를 일시에 확충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
- 반면 사업 추진이 구체화된 수요까지 계획 단계라는 이유로 보수적으로 반영할 경우, 데이터센터가 실제 구축되는 시점에 필요한 발전설비와 전력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사업 지연 및 전력공급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
- 따라서 전력수급 대응에서는 수요의 확실성과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전력수요를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수요 구체화에 따라 발전설비와 전력망을 적기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

■ (수요전망 고도화) 기업의 장기 구축목표와 실제 발생 가능한 유효수요를 구분하여 전력수급 전망에 반영할 필요

- 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의 계획 규모를 모두 반영하여 산출한 전력사용량은 2037년 이후 128.9TWh로, 2026년 8월 발표된 12차 전기본 수요 재전망(안)의 2040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 전망치(100.6TWh)를 상회하는 수준²⁷⁾
- 그러나 18.4GW는 기업의 장기적인 공급·구축목표로서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기본의 유효수요와 동일하게 취급하기보다는 사업 추진 단계와 실제 수요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할 필요
- 전력수급계획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확정수요·기대수요·잠재수요 등으로 구분하고, 사업 추진 및 최종 수요처 확보가 구체화된 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계획 단계의 수요는 입지 확정, 인허가, 수요처 확보 등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구체화되는 수요를 순차적으로 반영할 필요
 - 특히 기업의 구축계획은 시장 및 사업 여건에 따라 규모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기본의 2년 주기 갱신(rolling plan) 특성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수요전망을 조정할 필요

27) 다만 2026년 8월 수요 재전망(안)은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발표된 중간 결과로, 향후 총괄위원회 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 만큼, 확정 전까지 수치가 추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발전설비 적기 확보) AI 데이터센터 수요의 확실성과 발생 시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발전설비를 적기에 확보할 필요

- AI 데이터센터는 높은 전력밀도와 대규모·상시적인 전력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설비 확보가 중요
- 발전설비 건설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데이터센터의 확정수요와 수요 발생 예상시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급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필요
- 다만 장기 구축목표 전체를 확정수요로 간주하여 발전설비를 선제적으로 확충할 경우, 사업 지연·축소 또는 수요 미실현에 따라 설비 이용률 저하 및 과잉투자로 이어질 가능성
 - 발전설비와 송·변전망 등 전력 인프라는 구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일단 투자하면 회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어려운 비가역적 투자라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
- 따라서 수요의 확실성과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발전설비 확보 시기를 조정하고, 데이터센터 구축이 구체화되는 단계에 맞춰 필요한 공급능력을 순차적으로 확보할 필요

■ (계통 인프라 적기 확충) AI 데이터센터 구축 일정과 전력망 확충 일정을 연계하여 데이터센터 준공과 계통 접속 간 시차를 최소화할 필요

-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는 기존 계통의 여유용량만으로 전력공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변전소·송전선로 확충이 수반되어야 하며, 전력망 확충기간이 데이터센터 구축기간보다 길어질 경우 준공시점과 계통 접속 가능시점 간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
- 전력계통 확보가 지연되거나 불확실할 경우 데이터센터의 착공·구축 일정 자체가 지연될 수 있어, 계통접속 문제가 단순 가동 지연을 넘어 사업 추진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
 - 미국 주요 데이터센터 시장에서도 전력망 계통접속 대기기간이 평균 4년을 초과하는 등 데이터센터 구축과 계통접속 간 상당한 시차가 발생²⁸⁾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유사한 병목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정부는 345kV 변전소 정보 공개, 비수도권 계통영향평가 신속 처리 및 송·변전망 선제적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²⁹⁾을 통해 AI 데이터센터의 인허가 및 전력계통 관련 지원체계도 마련
- 따라서 데이터센터별 전력수요 발생시점, 계통 접속 가능시점 및 전력망 확충 일정을 연계하여 관리하고, 수요가 구체화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계통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할 필요
 - 특히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특별법 등 지원체계를 활용하여 데이터센터 구축계획과 전력망 확충계획 간 일정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

28) Jones Lang LaSalle(JLL), 「2026 Global Data Center Market Outlook」, 2026.1.

29) 동 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등을 규정한 법률로,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월 9일 공포되었으며, 2027년 3월 10일 시행 예정

nabO Industry Trends & Issues

산업동향 & 이슈

2026년 8월호 통권 제83호

발행일 2026년 8월 25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7-001585-06

ISSN 3058-9851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